



# 기독일보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40호

##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웰 다잉 목회’ 어떻게?

제42회 신촌포럼, 9일 신촌성결교회서 열려

제42회 신촌포럼이 9일 서울 신촌성결교회(담임 박노훈 목사) 아현홀에서 ‘웰다잉(Well-Dying) 목회,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렸다. 두 번의 강의와 논찬,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삶의 유종의 미 거두기 위한 기독교 의례

김형락 박사(서울신대 예배학 교수)는 ‘마주한 죽음? 그것을 위한 기독교 의례나, 우리, 하나님의 기원과 이야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기독교 의례에 대해 고찰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의례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나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잊지 못할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꼽았다. 아울러 그는 “의례의 마지막은 화해와 용서, 그리고 거룩한 교통을 위한 성만찬 의례를 거행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된 ‘모범 의례’의 구체적 예시를 들기도 한 그는 이러한 의례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고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필연적 통과 과정을 자신을 비롯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시하고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맞을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례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분리의 단계, 나와 맺은 모든 이들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용서와 화해의 커뮤니티사로 전이하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 모두가 거룩한 교통을 하는 통합의 단계를 맞게 된다”고 했다.

김 박사는 “또한 이 의례는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지향하기 위한 소망을 잠식한 모든 이들에게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죽음이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든다”

두 번째 강의를 윤득형 박사(한국에도 심리상담협회 회장)가 ‘삶은 죽음을 통해 성장하고, 슬픔은 표현됨으로 치유된다’라는 제목으로 했다. 윤 박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 위한 죽음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남겨진 이들의 슬픔 치유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죽음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절대 진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불확실성 뿐”이라며 “사실 이러한 불확실함이 인간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죽음이 없으면 좋겠지만 죽음이 있기에 삶이 존재하고, 죽음이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든다”고 했다.

윤 박사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처럼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음이 없는 듯 살아간다”며 “그렇게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첫째, 죽음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현재 주어진 삶을 더 잘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는 유언장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의 실제적인 준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 남겨진 자를 위한 슬픔 치유”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은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역으로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상실 이후에 겪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애도의 과정에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슬픔을 치유하는 것의 시작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



제42회 신촌포럼이 9일 신촌성결교회서 열렸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떤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이날 박노훈 목사(신촌포럼 대 표)가 개회사를 전했으며, 이상직 박사(신촌포럼 위원장)가 인사하고 포럼을 소개했다. 또 포럼 패널로는 김명환 목사(신림교회 담임)와 전범진 목사(일심교회 담임)가 참여했다.

신촌포럼은 신학과 목회의 이원화를 극복하고 양자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모색하는 한편,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와 사회 주년의 주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모임이다. 지난 1997년 4월 신촌성결교회에서 ‘한국교회와 21세기: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첫 포럼이 열렸다.

김진영 기자

## “교회 본질은 선교... 사역 우선 순위인 선교 본질 되찾자”

오는 7월 1-3일 열리는 프레스시 컨퍼런스 관련 기자회견 열려

프레스 무브먼트(공동대표 황덕영 목사·이상훈 교수)가 주최하는 프레스 컨퍼런스(FRESH CONFERENCE)가 ‘한계에 직면한 한국교회, 복음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새중앙교회(담임 황덕영 목사)에서 열린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황덕영 새중앙교회 담임목사, 이상훈 미성대(AEU) 총장, 윤은성 목사(어벤데일벤처스 센터장)가 참여한 가운데 9일 새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올해 프레스 컨퍼런스에는 에드 스테처

테처(Ed Stetzer) 탈봇 신학교 학장과 라이언 샌더스(Brian Sanders) 목사(Underground Network 설립자)가 메인 스피커로 나선다. 에드 스테처 학장은 선교적 교회와 교회 개혁, 복음전도에 대해 연구한 권위자다. 브라이언 샌더스 목사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모인 성도들이 일상에서 선교하도록 독려하는 언더그라운드 교회 운동가 중 한 명이다. 이들은 강연에서 북미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교적 복음전도의 흐름과 원리,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 강사는 황덕영 목사와 이상훈 교수가 나선다. 황 목사는 새중앙교회 성도들을 일상의 선교사로 세워 지역 복음화를 이끈 한국형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 교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교회에 선교적 복음전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선교적 복음전도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자 창의적 사역, 다음세대 등의 주제로 Ted 형식의 강연과 대담이 진행된다. 또 청년, 지역, 다음세대, 디아스포라, 비기니스, 이주민, 통일 등 8개 영역의 선택강의에서 각 분야 전



(왼쪽부터) 김상준 목사, 이상훈 교수, 황덕영 목사, 윤은성 목사, 김상인 목사. ©노형구 기자

문가들이 강의를 전할 계획이다.

황덕영 목사는 프레스 컨퍼런스에 대해 “Future, Revival, Engage, Serve, Harvest’의 앞 글자를 딴 프레스 컨퍼런스는 한국교회가 미래를 향해 복음으로 부흥을 꿈꾸고 함께 연결되고 동참하며, 예수님처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역을 추구한다”고 했다.

이상훈 총장은 프레스 컨퍼런스가 시작된 계기를 두고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 시점에서 프레스 컨퍼런스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일방적 메시지 전달보다 다양

한 목소리가 모이고, 큰교회와 작은교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논의하는 장”이라고 했다.

황덕영 목사는 “교회에겐 복음전도라는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어떻게 성취할지에 대한 과제가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로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사명을 첫째 우선순위로 삼고 회복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상훈 총장은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북미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교적 교회론의 실질적 사역 예시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싶다”며 “북미 지역의 건강한 교회들은 팬데믹 기간에도 복음 전도를 포

기하지 않았고 영혼구원을 위해 능동적으로 반응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복음을 체현하는 소위 선교적 교회론이 대두됐는데, 이번 컨퍼런스는 이를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배울지 논의하는 장”이라고 했다.

윤은성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도 불신자들을 적극 섬기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방향을 견지하는 전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또 “부산 경남 300개, 서울 경기 200개 등 각 지역 캠퍼스에서 다음세대를 중심으로 기도과 예배 모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 지역교회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움직임도 활성화하는 중”이라고 했다.

황덕영 목사는 “한국교회에 여전히 과거 전통적 방식에 머무른 경향이 있지만, 다음세대, 이주민, 북한, 지역사회 등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있다”며 “이에 대한 새로운 사역 정보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교적 교회론은 유행이 아니라 교회 본질이다. 이런 용어가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기 때문”

이라며 “선교하지 않은 교회적 경향성으로 이런 용어가 생겨났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윤은성 목사는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작은교회 숫자가 많이 줄고, 전반적으로 중형대형 교회들이 감소했다고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모든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황 목사는 “코로나19 기간 이후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결정적 계기는 선교적 DNA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그간 전도라는 주님의 지상대명령보다 교회의 구조적 틀이나 비본질적 사역에 매몰된 측면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선교적 본질을 되찾는 데 도움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훈 총장은 “선교는 특별한 한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기성교회나 작은교회도 선교적 DNA를 회복해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전세계 럭셔리 휴양 컬렉션**  
**오직,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아너스 회원에게만**

흘날리는 바람과 수많은 별이 수놓는 대자연의 압도감, 당신에게만 허락된 그곳에서 가장 경이로운 휴양을 선사합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얀트리 사우디아라비아 알올라

**BANYAN TREE HAENDAE BUSAN**

Sanctuary for the senses

**| 아너스 회원 글로벌 혜택 |**  
아너스 회원이 되어 전 세계 32개국 109개 호텔&리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 컬렉션을 누리십시오.

아너스 회원 모집 중 **1899.3318**

# 한기총 “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 재판부 월권”

### “수술 여부가 절대적 기준 아니라는 판단은 자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사진), 이하 한기총)가 “성별 정정에 대한 재판부의 월권행위를 즉각 시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9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

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며 “신체는 남성이어도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여성처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평가하며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것인데, 이는 재판부의 월권이고, 시정되어야 할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남성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이 되는가? 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가지

고 대중목욕탕에 가면 ‘여탕’으로 갈 수 있는가? 재판부는 ‘신체적으로 남성인데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성별 정정 허가의 요건으로 △의학적 기준 △신체 외관 △제3자의 인식·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

고, 이는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 괴이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법을 초월해 선제적 판단을 하며,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의 대법원 예규도 무시하고, 더욱이 판결에 인용한 202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것임에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왜곡되게 판단

한 것은 이미 판사로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법원은 즉각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며 “또한, 판사 스스로도 권한을 남용하며 ‘판결로 사법부를 흔들 것이 아니라 법복을 벗고 입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행정부가 즉각 항소해 사법부의 정상적이고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그리고 ‘신체적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호르몬 치료’라는 것을 주목한다면, 호르몬 치료 없이는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이고, 성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역시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성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한국교육 안에 바른 인성·믿음의 교육 있어야”

### 2024 다음세대청소년현장사역 컨퍼런스, 9일 번개TV 공개홍대 온맘씨어터에서 진행

미래교회전략연구소가 주최하고 번개TV선교회와 주관하는 2024 다음세대 청소년 현장사역 컨퍼런스가 9일 오후 1시, 저녁 7시에 번개TV 공개홍대 온맘씨어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번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됐다. 임우현 목사(번개TV 선교회 대표)의 사회로, 조성현 목사(송실고등학교 교목, 윌리엄피어어워쉽 대표)·나도움 목사(도움단지 스탠드 그라운드)·이정현 목사(청암교회 담임, 사무엘크리스찬아카데미 교장)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사역의 동기  
조성현 목사는 “저는 교회 부교역자로 교육사역을 하다가 믿는 가정의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안에서 교육하는 것이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인데, 여기에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교육대학원으로 진학해서 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나도움 목사는 “어릴 때 비전스쿨과 같은 활동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학교 방문이나 심방한다는 느낌으로 지금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12년이 넘도록 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이정현 목사는 “아이들이 공부하면서도 재미있을 수 있고, 꿈을 찾으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왜 재미없게 사는 것인가라는 것이 모티브가 되었다”며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나도움 목사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한 학생이 코로나 시기 도전을 받고 믿음이 생겨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10명에서 차츰차츰 늘어나 일반 중학교에 300명까지 모이게 되었다”며 “코로나 등 힘든 시기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 남게서는 과거 몇 십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게 믿음이 척박한 곳에서도 역사하심을 감동 되었다”고 했다. 이어 조성현 목사는 “저희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너무 없다보니 담임 선생님이 아쉽기 생겨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10명에서 차츰차츰 늘어나 일반 중학교에 300명까지 모이게 되었다”며 “코로나 등 힘든 시기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 남게서는 과거 몇 십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게 믿음이 척박한 곳에서도 역사하심을 감동 되었다”고 했다.

이러 조성현 목사는 “저희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너무 없다보니 담임 선생님이 아쉽기 생겨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10명에서 차츰차츰 늘어나 일반 중학교에 300명까지 모이게 되었다”며 “코로나 등 힘든 시기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 남게서는 과거 몇 십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게 믿음이 척박한 곳에서도 역사하심을 감동 되었다”고 했다. 이어 조성현 목사는 “저희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너무 없다보니 담임 선생님이 아쉽기 생겨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10명에서 차츰차츰 늘어나 일반 중학교에 300명까지 모이게 되었다”며 “코로나 등 힘든 시기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 남게서는 과거 몇 십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게 믿음이 척박한 곳에서도 역사하심을 감동 되었다”고 했다.

◆기독교 교육의 위기  
조성현 목사는 “내년부터 일반고들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다 막히는 상황이 된다”며 “그래서 일반계 미션스쿨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지를 학교 뿐만 아니라 교계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정현 목사는 “3040과 50대 세대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등의 믿음의 수준들이 낮아졌다”며 “예전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려고 했던 집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오늘날 다음세대 교육에 가장 큰 취약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나도움 목사는 “코로나 이후 교회의 입장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들



2024 다음세대청소년현장사역컨퍼런스 진행 사진(왼쪽부터 이정현 목사, 나도움 목사, 조성현 목사, 임우현 목사) ©번개TV

이 많고, 만 개가 넘는 교회가 사라졌다. 나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무언가를 해왔던 교회들은 다음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희망을 소식을 듣는다”고 전했다.

◆마지막 제언  
이정현 목사는 “부모세대의 안타까움과 그 위로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서서히 저 가는 모습을 볼 때, 영적이 동력이 끊어져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다신 한 번 영적인 동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 생각한다”며 “부모세대가 약하고, 교회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이 시대의 다음세대를 향한 또 하나의 돌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나도움 목사는 “학업을 비롯한 여러 여건들로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과 낙심이 될 때가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 꼭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하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때로 좌절하는 시간을 겪으면서 언젠가는 나의 모든 과정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될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요즘 다음세대 가운데 자

살과 자해가 많은데, 언젠가 소망이 있을 날이 올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했다.

또 조성현 목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공교육을 받고 있고, 그 안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독교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독교학교의 현실은 낙담하지 않다. 점차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마음을 다하는 기도 뿐”이라고 했다.

끝으로 임우현 목사는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수능 만점이라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그 안에 바른 인성과 믿음의 교육이 없이는 안 된다”며 “교회와 캠퍼스 안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을 위한) 우리의 사역이 연합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후 저녁 7시에는 이종남 목사(교신추산교회 담임), 유지혜 전도사(한성교회 차세대 사역담당), 한양희 목사(청소년교회 작은안덕 담임), 문재진 목사(미래교회전략연구소 소장) 등이 한국교회교회화교 사역현장 이야기를 전했다. 장요한 기자

## “인간의 피조세계 통치, 사랑의 섬김이어야”

### 예장고신 총회기후환경위원회, 9일 기후환경세미나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기후환경위원회(위원장 이세령 목사)는 9일 일원동교회(담임 권수경 목사)에서 ‘개혁신의 관점에서 본 기후환경이슈’라는 제목으로 2024 기후환경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권수경 일원동교회 담임목사는 “교회의 환경 참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소위 문화명령이다. 창세기 1장 28절은 피조물을 향한 인간의 책임을 가르치고 있다”며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공격받는 것도 창세기 1장 28절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위 장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사람에게 피조물 통치를 맡기시는 장면이다. 정복과 지배 개념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은 구절”이라며 “사람에게는 피조물을 대리 통치할 청지기 직분이 주어졌는데 이 청지기직은 자의적이거나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물을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함께 있어 합쳐야 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셨다고 나온다. 이는 공존이고 공생을 의미한다”며 “하나님을 닮게 함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즉 함께 라야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문화명령 곧 피조물을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명령의 실행 원리는 사랑이다. 세상

의 정복 개념과 다른 우리 주님이 보여 주신 정복과 통치도 사랑의 섬김이었다(막 10:42-45)”며 “성도들의 삶의 원칙도 언제나 사랑이며 이것이 피조물을 대 할 때도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환경신학의 토대”라고 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닮게 사랑으로 연합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피조물 통치를 맡기셨다.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가르침을 여자를 창조하시는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해 주셨다”며 “사람이 사랑으로 결합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셨다. 곧 사람이 사랑으로 결합해 그런 사랑으로 피조물을 다스려야 존재하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는 통치에만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 사랑의 뜻을 발견한 인간이 실행하는 사랑의 통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선 지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지구를 돌보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저녁반

마약중독예방지도사 7기

수료증 및 자격증 과정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1. 마약의 개념
2. 마약류의 법적 분류 - 마약, 향정, 대마
3. 마약 관련 용어 (부작용과 금단 구별하기 등)
4. 마약의 약물동역학적 특징 (pharmacokinetics)
5. 마약 독성학 (toxicology)
6. 마약 중독의 메카니즘(mechanism)
7. 개별 마약류의 특징 (각 부작용과 금단증상 등)
  - 펜타닐,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 등
8.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중독성 물질
  - 아산화질소, 먼지제거용 스프레이, 부탄 등
9. 기타 의료관련법에 의해 관리되는 중독성 물질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10. 대마초 합법화의 문제점과 현실
  - 네덜란드, 독일, 캘리포니아 등
11. 마약 합법화의 4단계 및 대처
12. 학교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표현
13. 마약예방교육시 무료로 사용가능한 materials 안내
14.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시 예방효과 극대화 핵심팁

강의기간 | 2024.05.20 ~ 06.17 매주 월요일 총 5회

강의시간 | 오후 7:30 ~ 10:00 (보강 목 오후 1시~)

※ 조별시연 있음(시연지도 및 자료 제공), 1회 결석시 수료 불가.

강의장소 | 줌(ZOOM) 온라인

수강자격 |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등록금 | 130,000원  
(마약중독예방지도사 수료증 소지자 65,000원, 1차시 수강 후 환불 불가)

신 청 | 에이랩 아카데미 홈페이지 NAVER 에이랩아카데미

문 의 | 010-7388-4321(문자 또는 카톡요망) 또는  
biblealeducation@naver.com

**ALAF\***  
**KAFAH\*** 한국가족보건협회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And Health

# “군선교는 황금어장... 복음으로 승부 걸어야”

이문선 목사, 예장통합 군선교 아카데미서 강연



예장통합 제15회기 총회 군선교사회 역량 강화 아카데미-두루세 자 양육 세미나가 9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문선 목사(두루제자훈련원 원장, 일산장대교회 담임사신)가 강사로 나서고, 총회군선교후원회가 후원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한 이목사는 “군선교가 황금어장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문선 목사의 세미나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교제는 양육교제 5원, 훈련교제 5원, 제자교제 5원 등 총 15원이 있으며, 이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5과로 구성되어 있다. ▲1과는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 된다는 것 ▲2과는 구원의 필요성 ▲3과는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 ▲4과는 구원의 방법 ▲5과는 구원의 결과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설명한다.

이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

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풀어 설명한다”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세대주의적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9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라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먼저 사랑하고, 찾아가고, 손을 내밀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사랑”이라며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예지예정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내신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해



예장통합 군선교 아카데미 진행 사진. ©장요한 기자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과거에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넷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엔 차별함이 없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 받은 민족이며,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으로 보았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이방인을 무시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다섯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라며 “원수된 자도 사랑하신 것이다. 그 예로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유란한 여인과

멜을 아내로 받아들여 주었다.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을 자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음란한 아내로 상징되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인과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섯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요 3:16)”이라며 “16절을 앞 문장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 본문 16절의 앞장인 14-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사랑”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일곱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다. 아들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

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 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덟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다. 얼마나 크고 위대인지 모른다”며 “아홉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다.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다만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신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제를 아브라함에게 찾아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라 말할 수 있다”며 “이삭번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죽여서 재물을 바치는 위대한 신앙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방식을 계시한 사건”이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계획을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 구약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구원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구원론”이라며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전해야 한다”며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문선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서울북도회 장대교회(일산)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프리셀트 전문강사로 일산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8년간 90학기(10주 과정) 정도 신구약 성경을 강의했다. 두루제자훈련원(두루선교회)을 설립하여 2004년 12월부터 목회자와 평신도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3년 재학 중 제자훈련을 연구하여 논문을 작성했고,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에서 제자훈련 논문을 출판했다. 비브리칼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했고, 제자훈련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제자훈련을 연구하며 실시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 “故 최인규 권사, 감리교회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

기감, 건국훈장 애족장 훈장추서 감사예배 드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교회) 이철 목사, 이하 기감)가 9일 서울 아현감리교회에서故 최인규 권사 건국훈장 애족장 훈장추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감에 따르면故 최인규 권사(1881-1942)는 천국교회 권사로 재직중 1940년 신사참예, 동방요배 등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항거하다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고문에 시달리며 복역하면서도 “천황도 사람이다. 신사참예 결코 할 수 없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일갈했고,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다 순교순국했다.

기감은 “최인규 권사는 민족말살정책 거부만이 아니라 무사식, 무면호, 무면회는 당연하고 고인의 화장-유해안장 등이 광복 전에는 유족, 친지, 교인 등 아무에게도 알려지지도 인도되지도 않은 국내의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이어 “평생 일군 모든 재산은 1932년 감리회 유지재단에 기부했고 1938년 양주삼 총리사가 표창을 하려 했으나 최인규 권사는 이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인정하지도 수령하지도 않았다”며 “감리교회에 이런 평신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알게 된 것이 부끄럽고 자랑스롭다. 최인규 권사님을 통해 꺾을 수 없는 신앙인의 절개와 민족을 향한 열정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기감 동부연회 동해삼척지방회 천국교회와 최인규기념사업회 등이 고인에 대한 훈장추서 청원을 해왔으나 종교적 이유로 순교한 사람을 국가가 기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반려됐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0월 이철 감독회장 취임 직후 기감 제34회 총회 역사보존위원회가 초기 한국 감리교회 인물들의 공적



故 최인규 권사 ©자료사진

을 정리해 대정부 훈장추서 사업추진을 결의했다.

결국故 최인규 권사의 독립유공자 포상이 결정돼 2023년 11월 17일 제84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고 기감은 설명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설교한 이철 감독

회장은 “최후 심판대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협박도 회유도 고문도, 다수의 여러 압박도 이겨내고 최인규 권사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며 “그의 걸에서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가셨다”고 했다.

이 감독회장은 “옛날이나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생각과 신앙의 본질, 행동의 방향은 지금도 같다.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함으로 얻을 이익 때문에 그 길을 가지지만, 믿음에서 있는 의로운 자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고 했다.

이 감독회장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영원한 생명이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는 변함없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한다. 오늘날 감리교



기감 이철 감독회장(가운데)이故 최인규 권사의 훈장증을 들고 공로패를 받은 이철규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회를 이끄는 중심은 믿음”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인정받지 못했던 한 인물이 공적 인 대우를 받았다는 데 기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안 된다. 우리가 최인규 권사님처럼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며 “그러한 절대적 과제가 감리교회 앞에 있다. 거룩한 한 모델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분을 모델 삼아 믿음으로 바로 걸어가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감사예배에선 김영민 감독(동부연회, 역사보존위원장)이 환영사를, 이광섭 목사(전농교회 담임, 역사보존위원장)가 경과보고 및 훈장추서의 의미에 대해 각각 전했다. 특히 기감은故 최인규 권사 훈장추서 결정에 대한 공로로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삼척큰빛교회 집사)과 민관기 목사(성안산성체들교회 담임)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예배는 이용원 감독(서울연회, 선교국위원장)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김진영 기자

## 공산주의가 사상이 아니라 사탄주의의 뿌리에서 내용을 증명한 책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마르크스와 사탄  
리처드 워브란트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Martyrs

칼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뒤 하나님과 모든 기독교의 가치에 반항했고, 결국 사탄 숭배자가 되어 정기적으로 주술을 행했습니다. 그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문서화된 이 책에서, 리처드 워브란트 목사는 마르크스가 사탄을 좋아한다는 설득력 있는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마르크스의 진술은 자신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오늘날에도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 정권 아래 계속해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증오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워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죄로 유럽에서 14년동안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마르크스주의에 담겨 있는 사악함을 분별하고 맞서도록 마르크스주의의 뿌리를 폭로하는 한편, 단순한 정치, 경제적 이론으로서 이익을 주는 척 위장하는 마르크스주의에 속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촉구합니다. 워브란트 목사와 그의 아내, 사비나 사모님은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에 순교자의 소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오늘날 북한,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등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 핍박 받는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기독교인과 동역하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010-8844-2065로 전화하시거나,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르크스와 사탄> 도서와 한국 순교자의 소리 365일 기도달력과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공산주의 정권 아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요청한 기도제목과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도 신앙의 도전을 받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www.vomkorea.com

# “팬데믹 이후 외로움의 시대... 돌봄 목회 전환 필요”

송용원 박사,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제15회 칼빈학술세미나서 발제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원장 황대우)이 7일 오후 고신대학교 손양원홀에서 ‘한국교회를 위한 칼빈의 공동선’이라는 주제로 제15회 칼빈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송용원 박사(장신대 조직신학)가 ‘팬데믹 이후 외로움의 시대, 21세기 한국교회와 칼빈의 공동선 신학’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 ◆팬데믹 이후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의 등장

송 박사는 “오늘날 지구촌화된 세계는 마치 하나의 몸처럼 되어가면서 부자와 빈자 사이의 양극화 심화, 종교적 문화적 충돌, 화석에너지 고갈과 신기술의 발전, 환경오염 등으로 겪는 다양한 갈등의 폭증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공동 곤경으로 인해 인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의 자각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역시 팬데믹 종식을 위해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팬데믹을 겪으며 증폭된 각종 사회적 병리 현상은 녹록지 않은 공동의 과제가 되고 말았다”며 “코로나 기간에 일상이었던 비대면의 시간, 1인 가구 폭증, 저출생 감축, 자살률 증가, 환담 현상, 소셜 미디어(SNS)에의 중독적 몰두, 개인주의

신화 등으로 어우러진 고립의 시대는 마침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의 그림자를 사회 전반을 드리우게 되었다”고 했다.

### ◆상호 돌봄 문화 수립해야

그는 “칼빈을 한계 시대를 위한 신학자로 규정할 도널드 매킴(Donald K. McKim)은 ‘칼빈이 사회 상황 속의 결합에 대한 치우침을 발견하려고 애썼던 사실에 주목했다’며 “한계의 세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도를 피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동일한 불편을 느껴야 한다.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가난함만 아니라 외로움까지 등장한 이중고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도와 결합을 피하는(칼빈의) 중용의 원리를 따라, 외로운 사람들이 급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는 돌봄 목회로 신속히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종교개혁 정신은, 사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적용(조정)된 교회는 항상 적용(조정)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는 팬데믹 이후 새로운 형태의 고립과 외로움에 직면한 인류가 역사상 그 어떤 이전 시기보다도 공동의 선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작

금의 현실을 고려한 제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송 박사는 “중세 유럽을 강타한 팬데믹 이후 16세기의 칼빈은 하나님 형상, 성화, 율법이라는 세 가지 신학적 토대를 그의 이론적 근거만 아니라 제네바의 교회와 사회와 관련된 자신의 실천 활동에도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영적인 은사들, 기도, 성례, 직무, 그리고 재산에서 발견되는 교회 공동선 사상과 또한 자연적 선물들, 경제, 박애 활동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공동선 실천으로 칼빈은 중세의 팬데믹 이후 교회를 재건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한 칼빈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교회와 사회의 상호관계에 적용하는 이론과 활동에서 자발성, 온건함, 협력적 동료관계였다”며 “상호복종이 조직화된 준비 의무보다는 도시의 공동선을 위한 선물 나눔의 구현에서 ‘제네바교회 리빌딩의 열쇠를 찾았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늘날 팬데믹 이후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에 시달리는 교회와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준다”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발적이고 기꺼운 상호 돌봄의 문화를 다시금 수립하여 영적 복지와 공동체적 연대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주의학술원 제15회 칼빈학술세미나 기념 사진. ©개혁주의학술원

그는 “아마도 칼빈이 오늘 한국교회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의 참여를 통한 교회와 사회의 공동작업 안에서 은혜의 선물이 나누어지는 ‘즐거움 호혜 방식’을 권고했을 것”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의 선

물을 교환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누면서 창조 질서에 담긴 공동체적 연대를 회복해 가는 만큼, ‘외로움이라는(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전염병’이 자리할 여지도 줄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본래 칼빈에게 ‘일반복지의 경제

적 차원은 수량적이지 아니라 질적, 영적으로 이해되었다”며 “게다가 칼빈은 관계적 존재로서의 고전적 ‘공동의 선’ 또한 자신의 인문주의적 이해에서 어느 정도 다룬 것도 사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기반을 둔 ‘은혜의 선물의 참여 신학’에 의해 성경적 공동의 선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했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칼빈이 오늘날 팬데믹 이후 고립의 시대에 교회와 사회 모두에 밀려드는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을 대처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인문주의적 차원의 상호 돌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삼는 신학적 차원의 상호 돌봄을 목회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이신열 교수(고신대 신학과, 조직신학)의 논평, 질의토론 순으로 모두 마쳤다. 장요한 기자

## “한국교회, 복음 정체성 강하나 사회적 연관성 약해”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최근 ‘성찰과 공감 포럼’ 개최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사장 지형은 목사, 이하 한기연이 최근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에서 성찰과 공감 포럼을 ‘22대 총선, 절반의 실패와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임성빈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형은 목사, 변상욱 한기연 공동대표(전 CBS 대기자), 민경중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특히 지형은 목사는 “이번 총선은 한국교회에 미칠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반의 실패를 반대로 바꾸면 절반의 성공이 되는데 기독교가 현시대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절반의 실패를 다시금 원만하게 이끌어 이 나라를 전반적으로 바람직하게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이 갈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축을 같이 한다고 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최근 성락성결교회에서 성찰과 공감포럼을 ‘22대 총선, 절반의 실패와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터 계속 이어진 포용 정책, 미국 쪽으로 긴밀하게 축을 같이 하는 그런 정책 등이 있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분단 문제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강점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정체성에서 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사회적 연관성에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목회, 신앙은 존재하

는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며 목회 대상인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타인이 계도화 되어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역은 사회적인 연관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지 목사는 “교회는 이 가치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독교적인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전주대, 개교 60주년 맞아 JJ선교센터 기공식 개최

전주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최근 전주대 스타센터 228호에서 선교센터로 활용될 JJ선교센터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행사에는 박진배 총장과 전주대발전목회자협의회 서희평 회장(샘물교회 담임),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서종표 회장(군산 중부교회 담임),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이경지 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응원을 보였다.

JJ선교센터는 전주대에서 현재 소그룹 단위로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학생 체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는 이곳을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할 소그룹을 위한 교제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진배 총장은 “JJ선교센터 기공을 위



기공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전주대

해 축하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J선교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더욱 건강한 신앙과 가치관을 갖추고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 예장 합동개혁, 전도 및 양육 세미나 후속 보충교육 실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은 전도와 양육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목회자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청주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전도 및 양육 세미나에선 목회자들로부터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대전시 서구 매노동 교육관에서 시행할 보충교육을 통해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축후와 노방으로 관계를 쌓으며 전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기질 파악과 기질에 따른 적절한 말씀 선포를 위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자체 전도 기술을 배우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충교육의 강사로는 총회부총회장인 정혜숙 목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문의처 | 전국 약국, 화장품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미세 진동 시술 효과 (시험기간: 2023.01.25~2023.03.10) (사후조사: 82% 이상 30명) (단, 의료기기법규준수) (K)

# 감선교회·차형규 목사 멘토링위 “역할모델 못 된 것 회개·사죄”

9일 성명 발표... “우리 안에도 동일한 죄 있었음 솔직히 고백”  
감선교회 전폭 지원하며 이사회 신속 구성  
차 목사 “더 깊이 회개 자리로 나아가겠다”

‘감선교회와 차형규 목사’에 대한 멘토링 위원회 명의로 “저희가 역할모델이 되지 못했음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사죄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이 9일 발표됐다. 차형규는 최근 의혹들이 제기된 데이비드 차 선교

사(사진)의 본명이다. 운영위원장은 나성균 목사(한영대학교 국제선교대학원장, 국제사랑의봉사단 이사장, 새소망교회 담임)로 되어 있으며, 위원으로는 강보형 목사(선교통일한국협의회 공동대표, 울산 행복한국교회 담임),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예담학원 이사장), 김철봉 목사(전 고신 총회

장, 부산 사직동교회 원로), 두상달 장로(전 CBMC 중앙회장), 박동찬 목사(일산 광림교회 담임), 박정곤 목사(선교통일한국협의회 공동대표, 가계고교회 담임), 신동우 목사(전 KWMA 이사장, 산돌교회 원로), 유관재 목사(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황성주 이룸 회장, 홍계현 목사(중동선교회 회장, 한마음교회 담임)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차형규 목사의 개인적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본인이 설립한 선교회에서 깨끗한 사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을 찬양한다”며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저희 지도자들이 먼저 통렬한 회개와 기록에 대한 깊은 열망이 없었고 다음 세대에 대한 역할모델이 되지 못했음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도 동일한 죄가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성도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저희 교계, 선교계 리더들은 다음 4가지를 결의한다”고 했다. 아래와 같다. 1.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후배들의 역할

모델이 되지 못했음을 통렬하게 회개하며 조용하게 목회자 성결운동을 일으킨다. 2. 감선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해 건강한 방향을 제시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신속하게 이사회를 구성한다. 3. 감선교회의 성경적 혁신과 재정적 투명성을 추구하고 아울러 모든 구성원이 거룩의 회개를 위해 집중 기도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4. 차형규 목사에 대한 중보와 멘토링을 통해 모든 회개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빛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역한다. 특히 이 성명에는 ‘전 감(KAM) 선교회 대표 차형규’라는 명의의 “더 깊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담겼다. “먼저 하나님과 목회자, 성도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깊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중보자분들에게 너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입니다.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더 깊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영 기자



## 한장총·CBS, 저출산 극복 위한 MOU 체결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는 최근 서울 양천구 소재 기독교방송(CBS)에서 CBS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돌봄국민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저출산 쇼크와 급격한 고령화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다

음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출산돌봄 국민운동에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본회를 대표회장 천환 목사, 총무 정성엽 목사, 서기 김순귀 목사, 한장총 출산장려위원장 신마가 목사, 전

문위원 김신 목사, 사무총장 백명기 목사가 참석했다. CBS 이기완 출산돌봄국민운동본부부장의 사회로 시작해 CBS 최문희 출산돌봄국민운동 본부장이 기도를 뒤 사무총장 백명기 목사와 CBS 이진백 선교기획국장이 양측 참여인사

를 소개했다. 한장총 대표회장 천환 목사와 CBS 김진오 사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돌봄국민운동 협약’에 서명했으며, 한장총 41회 출산장려위원장 신마가 목사의 폐회기도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회가 결혼, 출산, 육아의 당사자인 다음세대에게 성격적 가치관 전파한다. ②기독교 정신 회복운동을 통한 건강한 가족공동체 실현한다. ③성경말씀에 근거해 출산인식변화를 주제로 하는 주일설교 확산운동 전개한다. ④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 교회와



협약식을 마치고. ©한장총

교회간 크리스천 청년 커플 맺어주기 등 결혼장려운동 및 출산돌봄 관련사업을 전개한다. 한장총은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출

산장려위원회 주관으로 출산장려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CBS 김진오 사장과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가 각각 강의 이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 “연세대 안에 하나님의 위로 더 많아졌으면”

제195회 연세조찬기도회 열려

제195회 연세조찬기도회 예배가 음악대학동창회 주관으로 1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연세대 루스체플에서 열렸다.

민동립 동창회장이 인도한 예배에선 여은희(78 기약) 전 회장이 대표기도를 드렸고, 장현주(82 성악) 학장의 성경봉독과 음악대학 동문합창단의 특별찬양 후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 연세조찬기도회 회장)가 ‘마음에 달도록’(이사야 40: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쌍한 백성을 이제는 위로해 주라고 하신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명심하려고 하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는 “본문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달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신다”며 “사람보다 위대한 진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세조찬기도회의 의미는 정확한 사실과 학문이 지배하는 대학 사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진리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학문만 있으면 메마른 사막과 같은데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



연세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도회가 열렸던 연세대 루스체플 앞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세조찬기도회

한다”며 “그럴 때 구성원들이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함이 있어 우리 학교가 사랑 살 만한 멋진 곳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함에 더해서 따스함이 우리 속에 같이 흐를 때 그것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연세대 안에 그런 따스함과 위로가 많아졌으면 한다. 또한 그것을 이 기도회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이날 합심기도 순서에선 △지구촌의 평화와 나라민족을 위해-김순애(70 기약) 고문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신소미(84 작곡) 부회장 △연세와 국내 대학을 위해-홍충식(89 교육) 부회장이 기도를 인도했다. 이후 한원일 사무총장의 광고가 있던 뒤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찬송가 222장(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을 불렀다. 기도회는 김운성 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김진영 기자

## 한교봉, 국내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비 및 수술비 지원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이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을 위해 교육비 및 수술비를 전달한다.

한교봉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한교봉은 “부모에게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돌보지 않는 아이들, 법을 어긴 존재가 되어 사람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아이들이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교육비는 지난 3월 31일 ‘2024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시드러진 현금과 명성교회의 특별현금을 합한 1억 원이다. 이는 37개 국의 초등학생 222명, 중학생 67명, 고등학생 36명 총 325명에게 전달된다.

또 국내 미얀마 난민 학생과 우크라이

나 피난민 아동 중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대안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15명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교봉은 구개구수술로 이반 가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몽골 어린이의 수술비 일부도 함께 지원한다.

교육비 및 수술비 전달식은 오는 10일 오후 4시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라운드홀에서 열린다. 김진영 기자

## “하남 감일동 감사드림교회, ‘행복한 가정 세우기’ 행사 개최”

하남시 감일동 소재 감사드림교회(담임 차영아 목사)에서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The 행복한 가정 세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교회 앞 공원에서 열려 200여 명의 가족들이 참여해 부모님과 아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는 딱지치기, 바람개비 날리기, 에어바운스, 물풍선 터뜨리기, 볼풀 놀이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부스 체험이 마련됐다. 미션 스티커를 모아오면 아이스크림과 팝콘이 선물로 주어졌다.

행사장에는 교회 성도들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감일 지역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안전요원분들이 친절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행사가 진행되던 모습. ©감사드림교회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사인심의 제240402-01381-ADP (2024.4.2-2025.4.1)

KB 국민카드

# 美기독교단체 이사 “진보 목회자들의 누룩 경계해야”



미국 크리스천액션리그(Christian Action League) 노스캐롤라이나 지부의 전무이사인 마크 H. 크리치(Mark H. Creech) 목사가(사진)가 “진보적인 목회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크리치 목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보도된, 지난 4월 예일 신학대학원 공공신학 및 정책센터 창립 콘퍼런스에 참석한 기독교 성직자, 신학자, 학자 그룹이 서명한 ‘종교적 민족주의를 비난하는 선언문’에 대해 언급했다.

“2024년 대선에 도덕적, 영적 문제에 대한 뉴헤이븐 선언문은 미국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 진보적 대의를 전파하는 데 헌신할 것을 공언하며, 전통적 가치가 점차적으로 무기화되고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서명은 예일 공공신학 및 공공정책 센터를 설립한 진보적 활동가인 윌리엄 J. 바버 2세(William J. Barber II) 주교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치 목사는 “정치적 분열을 초월한다고 주장하지만, 바버의 전술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더 악화시켰다”며 “어떤 이들은 그의 대의, 특히 언론에 찬사를 보냈지만 그의 입법적 영향력은 최소한 이상으로 남아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의원들이 국민들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백 명의 불필요한 체포로 이어지는 방해 시위로 주의 법원 체계를 혼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종교적인 가면을 쓴 정치적 선동가로 활동했다. 그의 의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그 대신 바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의 복음을 영적으로 파괴적인 진보적 기독교(progressive Christianity)로 대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백인 복음주의와 종교적 민족주의(때로는 미국에서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불리는데) 등 경멸적인 용어로 이들을 비방했다”면서 “바버는 그들의 우려가 기독교 왜곡일 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인 최저 생활 임금, 의료, 생태 정의, 형사 사법 개혁, 투표권 등 뉴헤이븐 선언의 중심 주제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크리치는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무엇이 이들을 연결하고 있을까?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라며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성경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을 거부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을 반영한다”고 했다.

그는 “바버와 공동 서명자들이 뉴헤이븐 선언에서 사회 정의를 성경적 정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도, 두 관점 모두 공동체에서 정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정의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즉각적인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는 데 신학적 중점을 두어, 내세에 대한 고찰을 방해한다”며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사역과 신자들을 위한 영생의 약속을 전파하는 데서, 순전히 사회적 개선을 위한 윤리적 요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를 뒤흔들고 있다.”

크리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원론, 내세, 천국, 지옥에 관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타협할 필요는 없다. 복음 메시지는 영적 구원의 절박한 필요보다 육체적인 필요를 우선시하거나, 기독교 세계관에 반대하는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는 것으로 희석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진보적인 기독교가 하는 일이며, 이는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왜곡이고, 본래의 모습을 심하게 가장한다”라며 “모든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사회주의는 반기독교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대개 동료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마태복음 16:6)”라며 “이 경고는 상징적이지만, 예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권고하셨듯이, 영적으로 부패한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경계하려는 시대를 초월한 경고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 연관성은 지속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은 낙태, 성소수자(LGBT) 권리, 전통적인 가족 구조 거부 등 죄와 관련된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로 부터 비롯되지 않는다. 또한 자기방어, 가족 보호, 폭정에 대한 방어를 위해 종교적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람들로 부터도 비롯되지 않는다”고 했다.

크리치는 “정말로 우려해야 할 대상은 기독교를 고백하고, 종교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맡거나 시민 지도자로 활동하지만, 역사적 기독교의 기본 원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오해하지 말라. 문화적 구원의 거짓 약속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활력과 희망이 없는 암울한 삶을 제공할 뿐”이라며 “사회주의 정치 이념의 신봉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는 정치기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결국 우리를 단순한 국가의 노예로 전락시키겠다고 위협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러한 특징은 최근 ‘도덕적, 영적 문제’에 관한 뉴헤이븐 선언을 지지한 바버와 그의 동료들에게 딱 들어맞는다. 그들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이 이 나라를 곧장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유진 기자

# “목회, 속도를 낮추더라도 쉽 없이 달려가자”

샌퍼난도 벨리교역자협의회 주관 5월 월례예배 드려

샌퍼난도 벨리 교역자 협의회(이하 벨리교협, 회장 전지승 목사)가 5월 월례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7일 오전 만남의교회(벨리교협총무, 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전지승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신 바나바 목사의 찬양 인도 후에 변은광 목사(벨리생명교회)의 담임가 기도하고 김종경 목사(벨리교협 회계, 한생명 대학법 연구소)가 고전 9:25-2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인생과 목회를 마라톤에 비유를 많이 한다. 가나니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마라톤과 목회가 닮았다”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의 경주장에서 수 많은 자들이 달리기만 이기도록 경주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라고 했다. 달리기를 해보니까 잠정도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정리가 되었다. 달릴 때는 가볍게 해야지 필수 있더라, 목회도 우



샌퍼난도 벨리 교역자 협의회(이하 벨리교협, 회장 전지승 목사)가 5월 월례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조셉 리 기자



김종경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조셉 리 기자

리의 인생도 내 생각과 욕심과 자아와 모든 판단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달리다 보면 꼭 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점(데드 포인트)을 지나게 된다. 이때 달리기를 포기하면 절대 완주할 수 없다. 뛰다가 걷게 되면 안되고 속도를 늦추더라도 천천히라도 뛰어야 한다”면서 “우리 목회도 속도를 낮추더라도 쉽게 달려가자. 전제로 자신의 삶을 다

렸던 사도 바울처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았던 조지 헛펠드처럼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이어 전지승 회장의 광고 후에 최주철 목사는(혜가 샘솟는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순서로 벨리 교협은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특별한 점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다. 한편, 6월 월례회는 만남의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셉 리 기자

#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한 제14회 사랑의 콘서트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CMF 선교원이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한 제 14회 ‘CMF 사랑의 콘서트’를 5월 18일 오후 5시에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경 목사)에서 개최한다.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올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수 1:8)을 표어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섬기게 된다고 있다.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한 찬양 음악회다.

출연진으로는 특별히 이번 해로 10주년을 맞이



과거 열렸던 사랑의 콘서트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하는 Charis Christian Chamber의 연주와 소프라노 이효정 선생 그리고 배우는 자매가 함께 하여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음악회로 꾸며진다. 주최 측은 “가정의 달 5월에 열리는 CMF 사랑

의 콘서트는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에 순종하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선교사 가정을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생명의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이번 콘서트에 마음을 같이 하여,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행사가 열리는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8500 Bolsa Ave, Westminster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714-733-3566(제임 김 간사)에게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활용 강의 열린다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가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활용 강의 준비했다.

정보센터는 YouTube 다국어 Subtitle를 활용하는 방법 및 AI Voice Generator를 활용하여 현재 제작되어 있는 동영상 다국어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현장 및 Zoom Syn 강의로 진행되며 강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해 녹화 강의도 제공된다.

캘리포니아 OC 지역은 5월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6-9시, LA 지역은 5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6시-9시까지 10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300불이다. 강의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다.

강의를 진행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이번 강의는 지난 목회 및 선교를 위한 AI 활용-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 및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었다. 각 교회 혹은 선교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YouTube 생방송 및 영상들이 단순히 예배, 설교 및 신학 강의 영상을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언어를 변환하여 세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구 교수는 신학교 및 경영 대학교에서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IT, 경영 및 회계학 교수 사역과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현재 구 교수는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와 그레이스 글로벌비전스쿨(Grace Global Vision School) 대표로 교육을 통한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험) 노란우산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이 필수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운영하는 공적 공제금도서서, 중소기업중앙회 제120조에 따라 정부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위해 매 결산마다 내부통제금에 대한 공제금에 의무적으로 납입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인 송전교회 앞마당 ‘활짝’, 어린이·주민 웃음꽃 ‘활짝’

지역 축제로 자리 잡은 제7회 연두어린이 꿈축제 성황  
이상일 용인시장 “어린이들 행복한 시간 보내길”  
권준호 담임목사 “지역 섬김 멈추지 않을 것”

지난 4일, 때 이른 초여름 무더위에도 용인 송전교회 앞마당에 설치된 각종 놀이기구와 활동 부스 사이를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특히 물을 뿌려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워터 에어바운스 앞에는 항상 대기 줄이 서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용인 송전교회(권준호 담임목사)가 주관한 제7회 ‘꿈을 먹고 자라요’ 연두어린이 꿈축제가 올해도 1,000명 이상의 지역 어린이와 주민에게 신나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송전교회는 2015년 어린이날을 맞아 첫 꿈축제를 연 이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지역사회에 교회 문을 활짝 열어 섬김과 사랑을 실천했다. 연두어린이 꿈축제는 이제 매년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지역 인사와 교계 인사들도 참여해 축하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도 송전교회 앞마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즐기고 놀 수 있는 놀이동산으로 탈바꿈했다. △워터 에어바운스로 꾸며진 키즈랜드, 20m가 넘는 장대물 에어바운스, 에어 바이킹에어 총쏘가축구왕 등 각종 놀이 에어바운스, 꼬마기차, 트램펄린으로 구성된 ‘놀이마당’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흔들이북, 나비피리, 금관만들기, 가족사진 열쇠고리 제작 등 ‘미술마당’ △편백놀이, 달고나 뽑기 등 ‘오감마당’ △실내의 피크닉존의 ‘가족마당’ △팝콘·술사탕·김밥·달고차·컵라면·떡볶이·슬러시 등 풍성한 먹거리 판매하고 비전센터 엘리베이터에서 차도 마실 수 있는 ‘떡리리마당’ △점수처 환전소, 본부석 등 ‘섬김마당’이 마련됐다.

행사는 10대 청소년부터 60대 장년부까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송전교회 성도 130여 명과 꿈축제 개장 전부터 대기한 아이들, 부모들이 다 함께 “다음세대를 행복하게, 우리도 즐겁게”를 합차게 외치면서 시작했다. 너무 혼잡하지 않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놀이기구를 타고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올해 처음 꿈축제에 참여한 원유나(초3) 양은 “9시 50분부터 와서 재미있게 보내고 있다. 에어 바이킹이 제일 재미있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여한 장주원(초3), 손은준(초3) 군은 “워터파크가 재밌었다”고 했고, 엄마와 형제

들과 함께 처음 방문한 김민준(초4) 군은 “트램펄린 등 놀이기구가 즐거웠다”고 말했다. 민준 군의 엄마 왕림 씨는 “아이 세 명과 처음 왔는데 잘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사에 거주하는 30대 아빠 조OO 씨는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도 6살 아이가 좋아한다. 너무 크지도 않고 사람이 너무 안 많아서 더 좋다”고 말했다. 천리에 거주하는 30대 부부 김세준, 김보라 씨는 “3살 아기를 데리고 왔다. (김보라 씨)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셔서 초청해서 왔는데, 우선 복잡하지 않고, 스태프들이 잘 안내해주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잘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준 씨는 이어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가 인근 지역 주민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자체가 의미 있고 취지가 좋은 것 같다. (행사를) 교인 위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위해 해주시 감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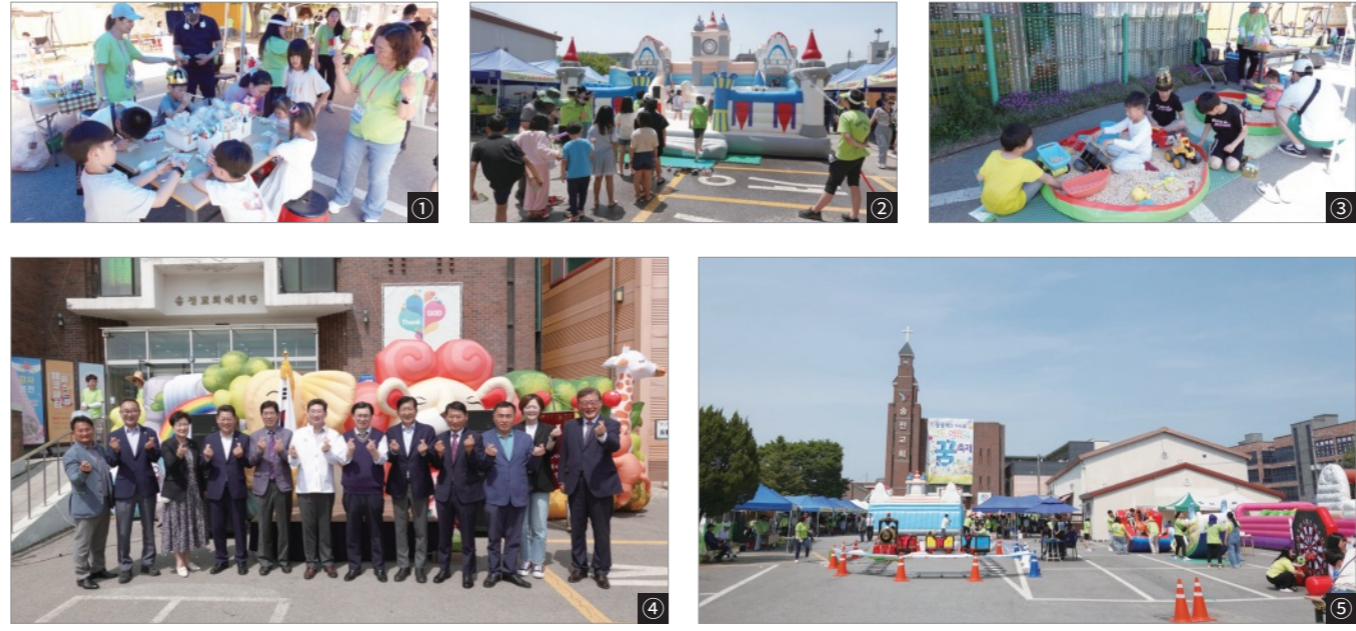
이파트 카페 공지를 보고 남사에서 온 30대 아빠 정민호 씨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놓아서 아이가 좋아한다”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이런 행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어린 이날 놀이공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은데, 멀리 안 가면서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 ◇송전교회 연두어린이 꿈축제, 노인대학과 함께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기념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이상식 용인시장 당선인(더불어민주당), 김영민 경기도의원, 이진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남홍숙 용인시의원, 박영선 이동읍장, 김학목 이동읍 이장협의회장, 방도관 주민자치위원장,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이병희 목사, 예정합동 용인노회장 김병구 목사, 이동읍기독교연합회 총무 이은준 목사 등의 내빈이 참여해 축하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권준호 송전교회 담임목사는 대회사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다. 꿈나무와 같은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뛰고, 배우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꿈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 어린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격려사에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린이날을 맞아



①제7회 연두어린이 꿈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미술마당에서 흔들이북을 만들고 있다. ②워터 에어바운스는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 ③아이들이 오감마당에서 편백놀이를 하고 있다. ④개회식 직후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⑤이날 송전교회 앞마당은 지역주민을 위한 놀이동산으로 바뀌었다. ©이지희 기자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훌륭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오늘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식 국회의원의 당선인은 축사를 통해 “꿈축제가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며 “어린이 현장의 내용처럼 어린이 여러분이 바르게,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준호 시장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작년에 4년 만에 꿈축제를 열었는데 비가 와서, (코로나 이후) 꿈축제를 제대로 한 것은 사실상 올해가 처음”이라며 “송전교회 섬김사역 중 하나인 노인대학이 지역의 브랜드가 된 것처럼 연두어린이 꿈축제도 중요한 지역 브랜드가 되어 감사하다. 지역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잔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매년 재정적 한계가 있지만 이번엔 우리가 다 준비했다. 전 교인이 꿈축제를 위해 헌금하고 중보기도하고, 자원봉사로 참여했다”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자 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송전교회는 지역 섬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식 당선인은 “송전교회는 노인대학 등 지역 가정교회로서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용기총 부회장은 “기독교 정신을 함양해서 기독교 내부적인 축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축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많은 교회가 용기 있게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해 주는 송전교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기총도 지역 교회들의 결속과 함께 주민과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고, 곳곳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유도해 주고 격려하여, 기독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송전교회 성도들 “행복한 아이들 보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교회 문턱 낮추는 데도 한몫

자원봉사자로 섬김 송전교회 성도들은 놀이동산으로 변한 교회 앞마당에서 지역 아이들이 마음껏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했다. 또 다음세대가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꿈축제를 통해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선자 권사(중보기도팀장)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먼저 담임목사님께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목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옥녀 집사는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배우고 마음껏 뛰어노는데, 나중에는 하나님도 알 수 있겠지 한다”며 “물론 꼭 그런 것이라기보다 아이들을 위해 여는 축제가 있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같이 즐겁다. 이런 행사를 만들어주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담임목사님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성숙 권사(직전 중보기도팀장)도 “저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올해 중보기도팀은 무엇보다 좋은 날

씨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다. 이성숙 권사는 “우리 모두 꿈축제 때 (작년처럼)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엄청 했다”면서 “평소에도 100여 명의 중보기도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픈 분들과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에는 네 차례 중보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기도회 등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송전교회에서 자라나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양수훈 성도는 “저는 1회 때부터 봉사했고, 와이프도 아이 낳기 전까지 봉사하다가 지금은 아이들을 데리고 꿈축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성도는 “이런 쉬는 날에는 어딜 가더라도 사람이 많은데, 다른 데 비해서는 비교적 사람이 적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 좋다”라며 “어디 멀리 가지 않고도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다.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이던 1회 때부터 자원봉사자로 섬김 이원희 형제(23)는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면, 힘들긴 하지만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며 “담임목사님의 비전이 저희 비전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오고 좀 더 많이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꿈축제에 참석한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원봉사자로 섬기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1회 축제 때부터 자원봉사자로 섬김 권연희 집사는

“저는 불신자였다가 송전교회 ‘해피코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넷째도 가졌다. 첫째가 고등학생,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중고등학생 자녀 두 명은 봉사하고 있다”며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받은 것을 이제 전해주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뻐하고 아주 열심히 봉사한다”고 말했다.

송전교회는 꿈축제를 비롯해 평소에도 지역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을 실천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왔다. 권연희 집사는 “요즘 다른 데 물가가 너무 비싼데 여기는 가성비가 너무 좋고, 주변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고, 저희 동네 아기 엄마들이 꿈축제에 정말 많이 왔다면 서 ‘주말에도 교회가 애들을 케어해주고, 이런 축제를 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전에는 뮤지컬도 해서 데려왔는데, 교회 이미지가 좋아져서 나중에는 전도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연희 집사가 전도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김선옥 집사는 “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제 아이가 셋인데 처음에는 (꿈축제에 와서) 누렸다”라며 “교회가 다음세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행사를 기다린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봉사하고 재미있어하고, 교회를 좋아한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송전교회 성도인 몽골 출신 바이올린은 이번엔 자원봉사자로 섬기면서 친구 주비 씨를 꿈축제에 초청했다. 필리핀 출신인 주비 씨는 “행복하다”고 말했다. 바이올린 씨는 “저희 둘 다 10살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끼리 친구다. 아이들은 주일에 종종 교회에 같이 오는데, 앞으로 얼마(주비)를 교회에 초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연두어린이 꿈축제는 송전교회 문화복지부가 주최하고, 송전교회가 주관했으며, 용인특례시와 이동읍사무소, 용인동부경찰서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한편, 송전교회는 지역사회 섬김 사업으로 노인대학, 엘리키페, 엘리키페, 문화교실, 아트홀 문화공연, 독거노인 김치도우미팀, 도르가 반찬팀 운영, 마을대청소, 약기교실, 효도관광, 사랑 나눔 상자,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다음세대 섬김 사업으로는 어린이꿈축제,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실내 놀이터, 키즈랜드, 다음세대 아이스크림 나눔, 페스티벌, 비전트립, 챔머 스토리(SUMMER STORY), 청소년 문화 공간 ‘블레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지켜요!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p><b>손 씻기</b></p> <p>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p>	<p><b>구분 사용하기</b></p> <p>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p>	<p><b>익혀먹기</b></p> <p>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 85℃) 1분 이상 익히기</p>	<p><b>끓여먹기</b></p> <p>물은 끓여서 먹기</p>	<p><b>세척·소독하기</b></p> <p>식재료·조리기구 깨끗이 세척·소독하기</p>	<p><b>보관온도 지키기</b></p> <p>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p>
--	--	---	-------------------------------------	---	---

# 학생 선호 대명사 사용 거부한 英기독교 교사, 정직... 사법검토 신청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된 영국의 기독교인 수학 교사가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조슈아 서트클리프(Joshua Sutcliffe)는 “직업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교육규제당국(TRA)으로부터 최소 2년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처분은 2017년 옥스퍼드 처웰 학교에서 남성으로 식별하기 시작한 생물학적 여학생을 ‘오성화(misgendering)’한 혐의로 해고된 후 내려졌다.

최근 런던 고등법원 심리에서 서트클리프의 변호인은 “선호 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은 없다”며 “그에게는 성 정체성에 대한 신념을 믿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트클리프(32)는 기독교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고 있다. CLC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학교용 트랜스젠더 지침 초안에 의해 그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침 초안에는 교사가 양심에 어긋나거나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에 반하는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침은 “어떤 교사나 학생도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되며, 대명사를 변경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도 교사가 어린이를 집합적으로 ‘소년’ 또는 ‘소녀’로 지칭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트클리프는 교직을 무기한 금지하라는 TRA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부(DEF)는 사법 검토 신청이 “가치 없다”고 주장했다.

DEF 변호사 레인 스티븐은 심리에서 “(서트클리프는) 이 사건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송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하고 학생들의 안녕을 보호하지 못한 심각한 실패에 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심리를 한 차례 더 거친 후 서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심리에 앞서 서트클리프는 “학교에서

나의 기독교 신앙을 감히 표현한 후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언론에 알린 후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 지침 초안과 ‘Cass Review’를 통해 정당성을 얻었으며 이제는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사교육이나 지침이 없었다. 판결이 유지된다면 교실에서 자신의 신념과 견해를 공유하는 모든 교사가 위협에 처하게 된다”라고 했다.

CLC 안드레아 윌리엄스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조슈아 서트클리프 사건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교사들은 규제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말을 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까 봐 겁을 먹



조슈아 서트클리프. ©CLC

고 침묵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교사라는 직업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탐색하기 쉽지 않다. 결혼과 성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기독교 신념을

표현하면 정직이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하고 결혼에 대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한 조슈아는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가 교실 안팎에서 하는 모든 일은 철저한 조사를 받았다”라며 “조슈아는 처음부터 학교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조슈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TRA와 국무장관으로부터 엄청난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만약 정부 지침 초안이 6년 전 시행되었다면 조슈아가 겪은 일 중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 英법안 “신축건물에 성별 따른 화장실 각각 제공돼야”

영국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안전, 생활, 존엄성’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신축건물에 성별에 따른 화장실이 각각 제공돼야 한다.

BBC에 따르면 올해 말 시행을 위해 몇 주 내 의회에 제출될 이 법안은 레스토랑, 쇼핑몰, 사무실, 대중화장실 등 모든 신축 건물이나 재건축 건물에 적용된다고 한다.

이 법은 또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칸테이너에 변기, 싱크대, 손 건조기가 포함된 ‘자체식 범용 화장실’ 옵션을 허용한다.

케이 바테노크 여성평등부 장관은 “이 규정은 확산되고 있는 성중립 화장실이



©Unsplash/Tim Mossholder

남녀 모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바테노크 장관은 성명에서 “이 규정은

조직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계하도록 유도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생활과 존엄성을 부정하는 소위 성 중립적인 화장실 공간의 증가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발표는 또한 여성을 위한 더 나은 규정을 마련해 특정한 생물학적, 건강 및 위생적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디언에 따르면 바테노크 장관은 최근 영국의 일부 여학생들이 성 중립 화장실 사용을 너무 싫어했으며 여성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물

학적 남성과 여성이 같은 공간에서 세면대와 칸막이를 공유하는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많은 여성, 노인, 장애인들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접수한 약 1만7천여 건의 답변에 따르면 대부분 건축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는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지지했고, 82%는 1인용 범용 화장실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일부 단체는 이 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단체들은 규정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 “바이든, 中 공급과잉 대응 위해 중요 산업 관세 검토” NYT

美, 유럽서 나타나는 中 공급과잉 영향 주시  
유럽 지도자들 당혹... 내달 G7 관련 사안 논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중요 산업에 대한 전략적 관세 인상도 검토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국내 소비를 훨씬 초과하는 생산과 보조금 정책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값싼 중국산 제품을 과잉 공급해 다른 제품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아직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미중간 무역수지가 악화됐다는 징후는 없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은 현재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적 징후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산 수출품이 유럽대륙을 휩쓸고 있어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3차 회담에서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러한 당혹감을 표출한 것이라 분석했다.

미국은 이미 유사한 경험을 지니고 있

다. Barack Obama 행정부는 자국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려 했으나,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흔들렸다. 이에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중국의 생산 및 가격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 산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 중이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현행 75%의 3배 수준으로 인상토록 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위해 일부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중국은 공급 과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미국은 내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 산업의 과잉 생산에 조화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희 특파원

## EU, 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등 지원키로

이자 수익 약 44억 유로 사용할듯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동결 자산에서 얻은 수익 약 44억 유로(약 6조 4598억원)를 우크라이나 무지원자금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열린 EU 고위 대사 회의에서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최종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오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예탁결제기

구 유로클리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2600억 유로(약 381조 7000억원) 가운데 1910억 유로(약 280조 40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월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이자가 44억 유로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벨기에 정부가 유로클리어에 대한 세금으로 10억8500만 유로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 자산 전체를 압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과정을 우려한 EU는 러

시아가 동결 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해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해당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유로클리어의 관리 수수료, 유로클리어에 대한 벨기에의 세금 등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U 회원국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부터 나온 수익의 90%를 무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10%는 비상사상 안보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이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무기 지원이 어렵거나 무기 지원

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을 위해 나는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유로클리어의 관리 수수료를 기존 3%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벨기에에는 내년부터 거둔 세금 수입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과 관련, 국제법 위반을 우려하며 미국의 계획을 경계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최현호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환경도 시민도 활짝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 모든 순간, 스타일이 되다 GENESIS GV70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5T-GDI RWD 18인치(C):복합10.1km/(도상:8.7km/ℓ, 고속도로:12.4km/ℓ) | CO<sub>2</sub>배출량:167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86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RWD 18인치(m):복합10.2km/(도상:8.9km/ℓ, 고속도로:12.5km/ℓ) | CO<sub>2</sub>배출량:164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86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RWD 19인치:복합9.8km/(도상:8.5km/ℓ, 고속도로:11.8km/ℓ) | CO<sub>2</sub>배출량:172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87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RWD 19인치(스포츠타키지):복합9.8km/(도상:8.5km/ℓ, 고속도로:11.8km/ℓ) | CO<sub>2</sub>배출량:172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89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RWD 21인치:복합9.7km/(도상:8.5km/ℓ, 고속도로:11.6km/ℓ) | CO<sub>2</sub>배출량:174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915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18인치:복합9.7km/(도상:8.4km/ℓ, 고속도로:11.8km/ℓ) | CO<sub>2</sub>배출량:174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930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19인치:복합9.4km/(도상:8.2km/ℓ, 고속도로:11.4km/ℓ) | CO<sub>2</sub>배출량:180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940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19인치(스포츠타키지):복합9.4km/(도상:8.2km/ℓ, 고속도로:11.4km/ℓ) | CO<sub>2</sub>배출량:180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960kg |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21인치:복합9.0km/(도상:7.9km/ℓ, 고속도로:10.8km/ℓ) | CO<sub>2</sub>배출량:187g/km | 배기량:2,497cc | 공차중량:1,980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RWD 19인치:복합8.9km/(도상:7.8km/ℓ, 고속도로:10.9km/ℓ) | CO<sub>2</sub>배출량:189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1,950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RWD 21인치:복합8.5km/(도상:7.5km/ℓ, 고속도로:10.1km/ℓ) | CO<sub>2</sub>배출량:199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1,970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RWD 21인치(스포츠타키지):복합8.5km/(도상:7.5km/ℓ, 고속도로:10.1km/ℓ) | CO<sub>2</sub>배출량:199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1,990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19인치:복합8.5km/(도상:7.5km/ℓ, 고속도로:10.2km/ℓ) | CO<sub>2</sub>배출량:199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2,015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21인치:복합8.3km/(도상:7.3km/ℓ, 고속도로:9.8km/ℓ) | CO<sub>2</sub>배출량:205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2,055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21인치(스포츠타키지, 셀마):복합8.3km/(도상:7.3km/ℓ, 고속도로:9.8km/ℓ) | CO<sub>2</sub>배출량:205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2,055kg |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21인치(스포츠타키지, 셀마):복합8.3km/(도상:7.3km/ℓ, 고속도로:9.8km/ℓ) | CO<sub>2</sub>배출량:205g/km | 배기량:3,470cc | 공차중량:2,055kg | 자동8단(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제네시스는 자정/대리점의 카미스타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윤,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특검법은 반대

### 저출생 대응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의료개혁 로드맵도 추진 단행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감찰 수사가 봐주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특검법 추진은 정치 공세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화된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의료계와 1년 넘게 이 문제를 다뤘으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통일된 의견을 듣지 못했지만 마냥 미룰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잘 걸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용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수경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하자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더 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 © 뉴스시스

# 터너 美북한인권특사 "북일 납치문제 협상 지원할 것"

### 유엔 등 국제사회 압박도 강화... 북한인권 상황 "악화일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진)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일본 간 협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 당국이 방역 명목으로 주민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 시청 주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정비했다며 "북한이 억압을 극한까지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터너 특사는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국을 요구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제조사) 답변을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일 방미한 남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후 나온 발언이다. 터너 특사는 "가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미국 정부의 우선 과제"라며 "고령의 가족들이 납치 문제 해결의 절박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터너 특사는 납치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리는 것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로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협상을 일축하고 있다. 터너 특사는 북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일 사전 조율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화에 긍정적이며, 북한에게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에 계속 관여하겠다"며 대북 정책 기조를 건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의 핵 포기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은혜 기자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는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나 북한 측은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협상을 일축하고 있다. 터너 특사는 북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일 사전 조율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화에 긍정적이며, 북한에게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에 계속 관여하겠다"며 대북 정책 기조를 건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의 핵 포기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은혜 기자

은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협상을 일축하고 있다. 터너 특사는 북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일 사전 조율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화에 긍정적이며, 북한에게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에 계속 관여하겠다"며 대북 정책 기조를 건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의 핵 포기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은혜 기자

은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협상을 일축하고 있다. 터너 특사는 북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일 사전 조율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화에 긍정적이며, 북한에게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에 계속 관여하겠다"며 대북 정책 기조를 건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의 핵 포기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은혜 기자

은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협상을 일축하고 있다. 터너 특사는 북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일 사전 조율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화에 긍정적이며, 북한에게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에 계속 관여하겠다"며 대북 정책 기조를 건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의 핵 포기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은혜 기자

은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협상을 일축하고 있다. 터너 특사는 북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일 사전 조율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화에 긍정적이며, 북한에게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에 계속 관여하겠다"며 대북 정책 기조를 건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 1분기 재정적자, 월례 최대 규모 75조 원

### 정부 올해 적자 예상치 80% 돌파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5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상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국제수입은 84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000억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212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 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신속집행 등으로 연간 계획액 252조 9,000억원 중 106조 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 집행률이 41.9%로 전년보다 7.8%p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 적

자 규모가 커졌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월 36조 2,000억원에서 한달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난 75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수 부진과 지출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부문별로 보면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5조 5,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도 수입 감소로 3,000억원 줄었다. 반면 고금리

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3조 7,000억원 늘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1,115조 5,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3조원 불어났다. 4월에는 국고채 15조원을 더 발행할 예정이어서 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월별 수입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 기준 91조 6,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지출 요인이 더 생기면 당초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내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 4개월 새 5500억 원 시총 증발

### BTS 멤버들도 주식평가액 17% 하락

### 문화株 개인주주 상위권 '취침'

국내 문화·콘텐츠 분야 최대 주식부자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주식시가총액이 최근 4개월 새 55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주

요 문화·콘텐츠 주식 중 100억원 이상 개인주주는 이달 초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가치는 2조 6302억원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초 3조 1760억원이던 방시혁 의장의 주식평가액은 최근 4개월 사이 5457억원(17.2%) 감소하며 2조원대로 내려앉았다. 하이브 주가가 최근 어도어 민회진 대표와의 갈등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의 주식평가액도 4개월 새 17% 이상 떨어졌지만 이달 초 기준으로는 여전히 100억원대를 유지했다. 개인별로는 김태형(136억원), 민윤기(136억원), 박지민(136억원), 정호석(125억원), 전정국(136억원), 김남준(116억원), 김석진(104억원) 순이었다.

문화·콘텐츠 주식부자 2위는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CCO(3657억원), 3위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뉴스시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1540억원)로 나타났다. 이내래 기자

# 바이든, 이스라엘 라파 공격 시 공격무기 지원 중단 최후통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마지막 남은 도시 라파를 공격할 경우 공격용 무기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강경 조치를 내렸다. 이는 민간인 보호를 요구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폭탄과 기타 방식으로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한 결과 (가자)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그들이(이스라엘) 라파에 들어가면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아이언돔 방공시스템 등 방어 무기는 계속 제공할 예정이지만, 라파 대규모 지상 침공 시 공격용 무기 선적은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을 이스라엘 지도부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이스라엘이 라파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는 대

규모 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하고, "상황 평가 후 고성능 무기 선적을 중단했다"고 확인했다.

현재까지 무기 선적 중단은 1회에 그쳤지만, 향후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시 추후 중단이 예상된다. 홍은혜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콜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 USCIRF,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인도 재지정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인도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24년 USCIRF 연례 보고서는 불법 활동 방지법, 외국 기부 규제법, 시민권 개정법 등 일련의 법률과 정부 조치가 바라티야 자나타당(Bharatiya Janata Party)의 힌두 민족주의 정책에 따라 기독교인 및 종교적 소수 민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소수 민족에는 무슬림, 시크교, 달리트, 유대인, 부족 또는 원주민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2023년 초에 인도 내무부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사하는 정책연구센터의 FCRA(외국 기부 규제법) 면허를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 정부가 구자라트에서 발생한 반 무슬림 폭동을 보도한 기자인 티스타 세탈바드 등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원회는 NGO 보고서를 인용하여 작년에만 기독교인에 대한 687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차티스가르주에서 힌두교 폭도들의 공격으로 교회들이 파괴되고, 기독교인에 대한 강제 개종 시도가 발생했다.

마니푸르주의 폭력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2023년 5월 3일에 발생한 폭력으로 500개가 넘는 교회와 2개의 유대교 회당이 파괴되었으며, 185명의 쿠키족 부족의 기독교인이 사망하고, 7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달 3일, 쿠키족 공동체는 폭력사태 1주기를 맞아 아침에는 공개 기도 모임을 갖고, 저녁에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회생자 87명이 안장된 공동묘지에서 진행되었다.

마니푸르에서의 폭력은 주로 힌두교도인 메이테이 공동체에 부족 지위를 부여



2024년 5월 3일,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에 있는 쿠키족 부족 기독교 공동체가 공개 기도회를 열고 폭력 사태 1주기를 추모했다. ©크리스천포스트

하는 것을 고려한 마니푸르 고등 법원의 판결로 인해 시작되었다. 이 판결로 인해 메이테이족은 쿠키족 부족이 전통적으로

거주하던 영토에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기독교 부족 공동체의 대규모 항의를 촉발시켰고, 이는

두 부족 간의 무력 충돌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위원회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아미트 샤 내무장관이 폭력 사태에 대한 자연된 대응과 불충분한 대처로 비판받았음을 언급했다. 또한 유엔(UN)은 인도 정부에 마니푸르 폭력 사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청했으며, 인도 경찰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부 지역에서 이슬람 사원들이 철거되고, 소 도살법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무슬림에 대한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힌두교 종교파들은 소를 신성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에 북부 하리아나주의 누(Nuh) 지구에서 힌두교 행렬이 열린 뒤, 타 종교적 시설물이 파괴되고 사당지가 급증하는 등 공동체 폭력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인도 정부의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캐나다에서 시크교 운동가 하딤 싱 니자르의 암살된 사건과 관련해 인도 정부의 개입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외교 관계를 긴장시켰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법률적 환경도 종교의 자유에 대해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 인도의 13개 주가 개정판대법을 제정하여 종교를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교도 남성이 힌두 여성과 결혼하여 개종을 유도하는 일명 '사랑의 지하드(Love Jihad)'에 반대하는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공동체 간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나아가에 따르면, 인도 외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인도 총선에 위원회가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 보고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 미국제종교자유위, '아제르바이잔'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미국의 초당파 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미국 국무부에 처음으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에 아제르바이잔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위원회는 1일 발표한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같은 북한, 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나카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2개국을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에 올렸다. 또한 올해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5개국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한 특별감시대상국(SWL)에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시리아, 타지, 우즈베키스탄이 지목됐다.

특별우려대상국은 알사바르, 보코하람, 하야트 타흐리르 알샤, 후티 반군, 이슬람국가(IS) 사헬지부,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및 자마트 누스라트 알이슬람 알말수라미니이 지목됐다.

아제르바이잔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을 권고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0년부터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을 2

단계 특별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2023년 위원회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분쟁의 여파로 아제르바이잔의 종교 자유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아르메니아 기독교인이었지만, 2023년 9월 아르메니아계가 아제르바이잔에 항복한 이후 대규모 탈출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및 주변의 종교 유적지에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작년 5월, 무바리크 구르반리 공식 국가종교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칼바자르 지역의 다디방크 수도원에 있는 아르메니아 사도 신부들에게 수도원을 떠나라고 촉구했다"며 "자신들이 종교 유적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지난 10월, 칸켄디 시를 방문한 유엔 사절단은 '문화나 종교적 구조물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다른 기관들은 여전히 해당 지역의 피해나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종교 단체가 합법적으로 예배를 하려면 2009년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요구사

항을 강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종교 서적 및 기타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회와 승인을 요구하고, 특히 '종교 선전활동' 또는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작년에 이어, 정부는 개신교

기독교인과 여호와의 증인이 공식 등록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무슬림 종교 공동체의 등록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슈백 USCIRF 국장인 1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과 2023년 연례 보고서에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종교 자유 침해가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며 "유감스럽게도 이 추세가 2023년에도 계속되어, 이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2009년 종교법을 개정하고, 2022년에 개정된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협력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주변 지역의 예배당과 기타 종교 또는 문화 유적지를 복원,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바쿠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유진 김 기자



건물 일부가 붕괴된 아제르바이잔 슈사의 한 성당에서 한 남성이 기도하고 있다. ©국제기독교연대(ICC)

## 미플로리다, 태아심장박동법 발효... "임산부 즉시 보호"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2일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장박동법(Fetal Heartbeat Bill)'에 서명했다. 또한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도 낙태를 금지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새 규칙을 잇달아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플로리다 보건행정국은 주의 '임신 6주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다음 날인 2일에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양)막의 조기 파열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의 치료를 위한 의료 기록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규칙은 "언론, 바이든 행정부 및 (낙태) 옹호 단체가 주장하는 매우 부정적인 위협적 선전과 허위 정보로 인해 임신부와 아이의 건강, 안전, 복지에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심장박동보호법과 생명, 산모, 가족을 보호하려는 주정부의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행정국은 "양막 조기 파열(PPROM), 자궁 외 임신 및 포상기태는 임신 6주 이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상황"이라며 "즉각적이고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병원과 낙태클리닉에 있는 여성과 태아의 건강, 안전, 복지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명시한다.

규칙에는 "각 병원이 양막 조기 파열,

자궁 외 임신, 융모상피암 및 종양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치료를 위한, 의료 기록 유지에 관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양막 조기 파열 환자를 "의사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찰을 위해 입원시켜야 한다"고 요구된다. 또 "의사가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양막 조기 파열을 치료할 목적으로 유도분만을 시도해 태아가 사망한 경우, 이는 낙태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자궁 외 임신 치료와 융모상피암 치료는 낙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플로리다 보건행정국은 행정 등록부에 비상 규칙을 발표하기 전, 엑스(X)를 통해 심장박동보호법을 둘러싼 거짓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오해 대 진실(myth vs. fact)'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법에 따른 처벌로 인해 여성들이 구금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플로리다의 낙태범죄 처벌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플로리다는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서약의 기준을 계속해서 책임지게 함으로써, 임신부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산을 겪은 임산부들이 치료

를 거부당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자료는 "플로리다 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보건행정국도 "여성들이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에 처하더라도 출산을 강요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오해 대 진실 자료는 "플로리다 법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거나, 주요 신체 기능에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의 심각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포함한다"며 "건강, 근친상간, 임신 매개로 인한 임신,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 의료 절차에 대한 예외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외에도 '의학 교육(Medical Education Laws, Med Ed) 법률을 제정한 주로는 사우스다코타가 있다. 이 법은 의료 전문가들이 어떤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규정하며, 주로 생명 옹호 단체들에 의해 홍보되고 있다.

올해 3월,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하원 법안 1224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임신 중인 여성이 생명이 위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의사 최선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주 보건행정국에 요구한다. 김유진 기자



**동아보험**

동아보검


#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검 경옥고는 동아보검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60포(23g x 10포 x 6)

경옥고

자양강장 ·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갱년기장애 · 권태

일반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무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설교의 첫 번째 초점, 삶의 변화 아냐... 은혜 공급하는 것”

고상섭 목사, 복음과도시 홈페이지에 ‘그리스도 중심 설교? 그리스도 형상 설교?’ 제목 글 게재

고상섭 목사(그사랑교회 담임)는 최근 복음과도시 홈페이지에 ‘그리스도 중심 설교? 그리스도 형상 설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고 목사는 “남침례신학교 설교학 교수 아브라함 쿠루벨라는 설교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라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독자의 변화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목표로 삼는다’고 했다.

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삶의 변화라면 묵상할 때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교제라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며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의 만남을 통해 사랑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지, 노력하고 추구해야 하는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날 때 변화가 따라오는 것인데, 쿠루벨라의 이론처럼 변화를 강조하게 되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자칫 율법주의로 흐를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팀 켈러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여기서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즉 칭의를 말한다. ‘모든 것’이란 삶의 모든 상황을 말하고 이 복음이 모든 것에 연결될 때 삶은 변화된다는 확신을 품고 있다”며 “센터처에서도 복음을 자존감, 유머, 인간관계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 적용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아울러 “팀 켈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일 없이는 ‘마음의 정감’을 건드리고 변화시킬 수 없다고 단언한다. 여기서 ‘정감’(affection)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서 차용된 단어인데, 인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뜻한다”며 “사람의 마음에는 감정(emotion)과 정감(affection)이 있는데, 사람의 변화는 ‘정감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다.

고 목사는 “삶의 변화는 ‘정감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정감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선포해야 한다’며 “즉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참된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불쌍함



그사랑교회 고상섭 목사 ©그사랑교회

을 자극할 수도 있고, 나눔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나눔을 자극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런 변화는 모두 감정의 변화에 불과하다. 의지에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말 나누는 삶으로 변화하려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물질주의’가 깨트려져야 한다”고 했다.

고 목사는 또 팀 켈러 목사가 쓴 ‘팀 켈러의 설교’에서 한 대목을 인용하며 “설교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다시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정감 안에 그리스도가 물질적인 것을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주장이나 교리적인 가르침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부요함을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고상섭 목사는 “수련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만 돌아오면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정감의 변화가 아닌 감정의 변화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며 “정감이 변화될 때 삶은 변화되는데 그 정감의 변화가 일어나는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선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쿠루벨라의 ‘그리스도 형상 설교’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른바 도덕적, 율법적 설교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팀 켈러가 ‘퍼거슨은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모두 동일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된 핵심은 ‘잘못된 분리’에 있었다고 말한다”며 “‘퍼거슨이 말하는 ‘잘못된 분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혜택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 목사에 따르면, 팀 켈러가 퍼거슨 교수는 자신의 책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사역을 서로 분리하여 전할 수 있다.(중략)...복음의 혜택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치 그분을 떠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것과 그분을 분리할 수는 없다.(중략)...마치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혜택을 그분과 분리하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팀 켈러가 퍼거슨이 말하는 분리는 ‘칭의와 성화의 분리’를 말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고 그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 결국 모든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제시하지 않는 그리스도 형상을 따르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분리’를 가져와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형상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과 사랑을 경험할 때,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 설교의 첫 번째 초점은 삶의 변화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다. 사랑하면 삶은 변화된다. 삶의 변화를 위한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고 했다.

아울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법을 살펴보면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알려준다”고 했다.

결국 “십계명을 지키는 힘은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순종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오병이어 기적의 원리 세 가지는..”

황덕영 목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주제로 메시지 전례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사진)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막 6:34-44)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황 목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중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함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특별한 기적”이라며 “이것이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먼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기적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며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주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낙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첫 번째로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현상과 결과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며 “예수님께서도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의 가난과 굶주림뿐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잃어지고 있는 인생의 질곡을 바라보며 큰 고통과 함께 공물을 느끼셨다”고 했다.

이어 “예수님은 지금도 이와 동일하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 구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공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로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유일한 나로 바라봐 주신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덧붙였다.

또한 “둘째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직접 기적을 일으켜서 주린 무리 모두를 먹일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며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셨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도 드렸던 것”이라며 “현실을 바라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으나 믿음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암담해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란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즉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황 목사는 “셋째로 헌신이 기적을 일으킨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헌신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며 “바로 이 헌신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한 어린이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드린 어린이는 연약한 존재였고, 그 아이가 드린 도시락은 작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러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며 “기적은 내게 하락된 내 손 안에 주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할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라며 “주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품고 믿음으로 나의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려, 새로운 기적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며 “기적의 주님을 믿고 누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려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 조현삼 목사 “우리 인생선, 조금 가볍게 할 필요 있어”

조현삼 목사(서울광영교회사신)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인생선(人生線)도 조금은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 목사는 “바울의 4차 전도여행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다. 이때 바울은 배편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다”며 “가이 사라에서 출발해 로마의 속주 투기아에 있는 한 도시 무라에서 바울 일행이 환승한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배는 미항을 출발해 베니스로 가다 허리케인급 태풍을 만났다. 이 배를 탄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 칠혹 같은 바다 위에서 14일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며 “성경을 보는데, 태풍을 만난 선장과 선원들이 한 일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14일 동안 다 버렸다. 하물도 바다에 던졌다. 배의 기구들도 버렸다. 나중에는 거룻배 줄도 끊었다. 그들의 양식인 밀도 바다에 쏟아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버린 것은 다 돈이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살 수 있기에, 이들은 버렸다”며 “태풍을 만난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을 그들은 버렸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살았다”고 했다.

그는 “인생 태풍을 만나면, 그때 무엇이 중요한지 선포해준다. 평소 저 무에 두던 것이 소중한 것인 것을 아는 때도 이때”라며 “인생선, 배 선(船)자를 넣어 지는 말이다. 우리 인생선도 조금은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너무 무거워 배를 띄울 수 없다면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쌓기만 하

면, 그 무게에 우리 인생이 눌릴 수도 있다”며 “배가 땅에 닿으면 더는 항해가 어렵다. 배는 띄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하면 버려야 한다. 저장장이라는 말이 있다. 버리지 못하고 쌓는 것을 두고 하는 말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린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수 있다”며 “그러면 나눠 잃는다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털어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버리지 않아서, 흘러보내지 않아서 너무 인생선이 무거운 상태는 아닌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며 “집을 차지하고 있는 너무 많은 물건 때문에 숨 쉴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닌지, 둘러봐야 한다. 살려면 털어내야 한다. 살려면 나누야 한다. 살려면 버려야 한다. 그 래야 산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동화약품

감기없는 코리아 판콜이야

판콜 PANCOLD 에스 S

동화약품

1위 감기약 판매

인본의약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처방전/사용설명서 주의 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조/판매/유통사: (주)인본의약품, 2024-1705-003100) | Manual No.: PANCOLD-2311-4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권장. (제조/판매/유통사: (주)인본의약품, 2024-1705-003100) | Manual No.: PANCOLD-2311-4

# 사이비(似而非) 재림주(再臨主)에 관한 나사렛 예수의 경고(1)



김영만 교수  
기독교학술원장  
송실대 명예교수

## 역사적 예수 논구 시리즈

나사렛 예수는 종말 시에 일어날 환난과 각종 재난의 환란을 틈타서 여러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재림주들이 출현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경고하신다. 이러한 사이비 재림주를 예언하신에 있어서 예수의 메시아 의식과 탁월성이 나타난다. 역사상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 관해서는 예고했으나 사이비 재림주에 관하여 예언한 예는 없기 때문이다. 나사렛 예수 자신은 현재는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나 나중에 재림 시에는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인자(人子)라는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명료한 자의식(自意識)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 예수는 자신의 이름으로 민중들을 미혹(迷惑)할 거짓 재림주에 대하여 경고하신 것이다. 복음서 저자들인 마가, 누가, 마태는 그들의 복음서에 이러한 자칭 재림주에 관한 예수의 경고를 자세히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다. 역사적 예수의 사이비 재림주 경고를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이비 재림주 현상에도 적용되고 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 종말의 표징에 관하여 다음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 하도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5-14).

오늘날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이비 재림주인 자칭 그리스도(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중국 동방번개파 여자

교주 양소형(楊向彬 등)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중국에서 ‘사교’로 규정된 전능신교(일명 동방번개파)가 한국에서는 ‘전능하신하나님교회’란 이름으로 치밀하게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 동방번개파가 허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장쑤성 푸젠성 광둥성 동베이성 등지의 가정교회를 집중 공략, 와해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의 주요 이단은 동방번개파 외에 ‘호함파(呼喊派)’, ‘중생파(重生派, 哭派, 全範圍教會)’, ‘삼반복인(三班僕人)’, ‘육신성도(肉身成道)’, ‘제자회(門徒會)’, ‘영영교(靈靈教)’ 등이 있다. 동방번개파는 1990년 자칭 ‘여자 그리스도’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 ‘말세의 그리스도’라는 덩(鄧)씨성을 가진 여자에 의해 세워졌다. 그녀는 과거 호함파 교주인 리창서우(李常受·위트니스리) 계열이었다. 동방번개파는 성경을 지나간 시대의 유물(遺物)로 여기고 자신들이 출현한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 또는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다>와 같은 책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중국교회 이단, 동방번개파(東方閃電派) (2013.05.01). 한국교회연론회 자료실 2015.05.15 16:01)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로 변하고 아들이 성령으로 변하는 ‘일위삼체’ 하나님을 주장한다. 그리스도도 처음엔 남자의 몸이 되었다가 중국 여자(遺物)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은혜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천년의 회한국(回汗國)가시대로 오직 계명을 지키고 여자의 몸이 된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중국 가정교회 ‘동방번개’ 비서, 국민일보, 합태경 기자 기사인력 2005-02-16 17:28 | 최중수정 2005-02-16 17:28).

1940년대 중국 내전(1946-1948), 1950년대 한국 전쟁(1950-1953), 1990년 르완다 내전, 1990년대 세르비아-보스니아 전쟁, 2000년대 예멘, 시리아 등 민족 전쟁들이 일어났다. 2010년대 일본 후쿠시마, 중국 쉬촨성, 네팔 등의 강진(強震),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경주에서 일어난 5.8도 지진(1978년 기상청이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 등 지진은 세계도처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북한, 아프리카 등의 기근 등으로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2001년 9.1 테러로 1989년 동구권의 민주화 혁명으로 무너진 공산주의를 대체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세력으로 이슬람이 세계무대에 등장하여 2001년 9.11 미국 맨해튼 쌍둥이 건물 자살 폭파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이슬람 근본주의가 유



자칭 재림주 행세를 했던 문선명, 박태선, 양도천, 안상홍, 이만희(왼쪽부터). ©자료사진

럽과 미국에 대하여 자살 테러를 시작하였다. 이슬람 지역에서 2014년 IS무장단체가 부상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IS)은 2014년 6월 11일 이라크 제2 도시 모술을 점령했다. 사기가 오른 우두머리 알바그다디는 6월 30일 모술의 유서 깊은 이슬람 사원 강단에 올라 “나는 모든 이슬람 세계의 칼리프(정주종교 지도자)다”라고 외치며 ‘이슬람국가(IS) 건국’을 선언했다. 그런데 3년 지난 2017년 7월 10일 이라크 정부군이 미군과 쿠르드족(族) 민병대 ‘페슈메르가’와 힘을 합쳐 IS로부터 3년 만에 모술을 탈환했다.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참수가 자행되고 있다. 세계 선진국에서 자유주의자들의 성해방 운동으로 간통과 동성애 확산에 의해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윤리가 퇴폐되고 있다. 침만 교통신단과 인터넷 발전 등으로 세계 각처에 있는 미지의 종족들로 묘사될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세계 종말의 징조로서 종말 도래에 대한 예수의 예언이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수의 재림(再臨)은 정말 임박했다고 말할 수 있다.

### I. 사이비 재림주 사상

복음서 저자 마가는 종말의 때에 출현할 사이비(似而非) 재림주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다음같이 전한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13:5-6).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마 13:22). “그 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 13:21). 복음서 저자 누가도 예수의 말씀을 다음같이 전한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

들을 따르지 말라”(눅 21:8). 복음서 저자 마태도 예수의 말씀을 다음같이 전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마 24:11).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 24:23).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 24:26). 2천년 전에 이미 예수는 종말 시에 거짓 그리스도와 자칭 재림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을 예고하고 하셨다.

예수의 예언 그대로 이미 역사상 많은 거짓 재림주들이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2세기에 몬타누스주의자들(the montanists)은 소아시아 프리지아 지방의 페푸자(Pepuza)라는 곳에 재림주가 온다고 미혹을 퍼뜨렸다. 그러나 재림주는 오지 않았다. 종교개혁시대에는 제세레파들(Anabaptists)은 독일 북부 도시 뮌스터에 재림주가 도래한다고 미혹하였다. 그러나 재림주는 오지 않았다. 19세기에는 오늘날 안식교의 전신(前身)인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가 재림주가 온다고 미혹하였으나 불발하자 그 추종자들이 만든 교회가 오늘날 제칠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이다. 1978년에는 미국 흑인 목사 짐 존스(Jim Jones)가 사이비 재림주로서 신자들을 이끌고 남미 가이아나 밀림에 정착하여 인민사원(Peoples' temple)을 만들어 생활하다가 반대자들에 대한 살인사건과 연루되어 미CIA에 의해 조사받게 되자 전 신자들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93년에도 미국의 텍사스주 웨이코(Waco)의 다윗과 종말론 교주 데이빗 코레쉬(David Koresh)가 이끈 사교(邪敎) 집단이 각종 의혹으로 CIA의 수사를 받아 총격전을 벌려 불을 질러 8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도 문선명, 박태선, 양도천, 안상홍, 이만희 등이 자칭 재림주로 행세하였다. 1996년 다미(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의 약칭)선교회가 재림주의 오심을 퍼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생존시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였으나 2012년 폐렴에 의해 죽어 그의 시신(屍身)이 가평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 24:26). 2천년 전에 이미 예수는 종말 시에 거짓 그리스도와 자칭 재림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을 예고하고 하셨다.

### II.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미혹함

이들 거짓 그리스도와 사이비 재림주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거나 조작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복음서 저자 마가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마 13:22). 복음서 저자 마태는 다음같이 전하고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마 24:24). 병 고침이나 방언이나 예언도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종교(무속종교, 불교, 이슬람교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신비스러운 일을 한다고 하여 참 종교인 것은

아니다. 통일교의 총책임 유효원은 폐결핵으로 죽음을 이르렀는데 문선명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 그의 충실한 심복이 되었고, 통일교 열성 입문자들은 “햇빛만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불을 받는다” 등 귀신의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 문선명도 나중에 “하나님, ‘참 아버지’로 등극하였다. 문선명이 2012년에 죽자 그 부인 한학자가 통일교를 관장하고 있다.

박태선 전도관도 저들의 집회장소에서 하늘에서 불과 이슬 성신을 내리는 기적을 연출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다. 전도관은 나중에 박태선이 자칭 ‘천부’로 등극하여 천부교로 둔갑하여 많은 이단자가 생겼다. 박태선이 1990년에 죽고 난 후에도 이슬성신이 내리는 것이 바로 박태선이 ‘천부’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양도천은 1964년 10월 10일에 세계일가공회를 발족하였다. 영약(永約)은 세계일가공회의 규범이며, 양도천 자신이 정감록이 예언한 정도령(鄭道令)이라는 것이다. 영약의 핵심주제는 “영약의 날 곧 한님의 날이 온다.” “한님이 강림한다.” “인류와 세계는 한님에게 돌아가야 한다” 등이다. “한님의 강림은 ‘한님의 분신(分身)을 말하며, 제4위의 신격인 양도천의 출현을 뜻한다. 신도안은 새 예루살렘이 된다. 양도천은 “한님”의 분신으로 신의 제4위로서 군림하고 있다. 신도들은 “한님”을 체험한다고 한다. 이것은 강신술(降神術)이다. 그는 “한님”의 재림주로 자처하며, 세계일가공회의 대표 권속으로서 최고의 가장이다. 세계일가공회에서 말하는 가장(家長)은 개인의 집, 가정의 집, 국가의 집, 그리고 우주의 집 등을 통솔하는 신인(神人)이다. 세계일가공회는 신인(神人) 양도천을 중심한 새한님주의이며 민족신앙 위에 세운 혼합주의이다. 그리고 세계통일의 종교적 범신론이요, 혼합주의이며 인본주의이다. 신인 양도천은 2011년에 죽었다. <계속>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 게보린<sup>®</sup>쿨다운정

광고심의필 : 2022 - 1618 - 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포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염좌통), 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동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 책을 펼치면 꿈이 열린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경산중앙교회(담임 김종원 목사)에서 주일 4번의 설교를 끝으로 올해 모국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경산은 제게 낯선 땅입니다. 경산중앙교회는 경산에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경산에 경사가 났습니다." 저는 경산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의 독서 모임에 대해 배웠습니다. "책(책)과 만남(Network)과 꿈(Dream)이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슬로우런이 감동입니다. "책을 펼치면 꿈이 열린다."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미국 상황에 잘 맞추어 적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잘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배웁니다. 어디에서나 배웁니다. 모든 상황에서 배웁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배움을 통해 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자극을 받습니다. 배움은 변화와 성숙의 통로입니다. 살아 있는 것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죽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움을 얻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남을 통해 배웁니다. 저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저를 축복해 주신 까닭입니다. 저는 오래된 만남을 통해 우정을 지속적으로 쌓습니다. 또한 저는 낯선 만남을 통해 새로운 우정을 쌓습니다. 낯선 만남은 조금 아색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낯선 만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낯선 만남들을 통해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꿈꾸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에게 미움을 받았습다. 반면에 그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낯

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을 통해 바로 왕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도 요셉에게는 낯선 만남입니다. 낯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만남을 통해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낯선 만남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낯선 만남이 또 다른 낯선 만남을 연결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낯선 만남과 새로운 만남은 또 다른 낯선 만남과 새로운 만남을 낳습니다. 만남은 눈뜸입니다. 낯선 만남은 우리 눈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낯선 만남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만들어주는 거울이 됩니다. 거울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함께 내면의 모습을 살피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낯선 만남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들어 주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창문을 통해 우리는 밖을 내다봅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얻게 됩니다.

둘째, 관찰을 통해 배웁니다.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점점 커집니다. 저의 관심은 목양에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목회를 어떻게 올바르게 하고, 더욱 잘할 수 있을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남길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만나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합니다. 관찰을 잘하는 방법은 마음속에 질문과 의문을 품고 살피는 것입니다. 질문과 의문과 더불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할 때 큰 배움을 얻게 됩니다.

셋째, 책을 통해 배웁니다. 이번 모국 일정은 정말 많은 집회를 감당해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저의 삶의 거룩한 루틴입니다. 또한 매일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밥을 먹듯이 책을 읽습니다. 저는 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국에 머무는 동안 서점을 방문했습니

다.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들을 만나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서점에 가면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사기도 하고, 함께 동행한 분에게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선물해 드립니다. 모국 집회 기간 동안 읽은 책 중에, 손웅정(손흥민선수부친)씨가 쓴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가 있습니다. 독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감동적인 책입니다.

넷째, 스토리를 통해 배웁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는 까닭은 책 속에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책 중의 책인 성경에는 창조와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매력은 맛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드라마 속에는 반드시 위기와 갈등과 역경과 실패와 실수와 참채와 이별과 상실과 질병과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극복한 역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좋은 책을 통해 역전의 드라마를 읽으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 Fundraising(비전)



정태희 목사  
DCMi 선교회 대표

### 정태희 목사의 삶과 리더십

유교 세계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서 그런지 미국에 온 지 30년이 지났지만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다. 마땅히 주고받아야 할 돈을 주고받는데도 현찰이 오고 갈 때는 우리 한국인은 굳이 돈을 봉투에 넣어 상대방에게 건네어 준다. 거의 모든 한국인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이라면 영적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더욱더 돈에 대해 이야기 하고 돈을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고 쑥스럽다. 극우 경건주의자는 돈이 무슨 교회와 사역을 망치는 악의 뿌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실상 돈이 갖는 윤리적 가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다. 돈의 윤리적 가치는 중립이다. 성경은 돈이 (윤리적으로)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딤후 6:10) 전반절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면 교회는 현금도 걸으면 안 된다. 악한 돈이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의 윤리성은 돈 그 자체에 있기보다 돈을 버는 방법과 그 돈의 용도에 있다.

교회에 돈이 없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도 교회

를 유지할 수도 없다. 선교단체에 돈이 없으면 선교는 어렵없는 일이다. 우리가 목회자와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면 마땅히 사역을 위해 돈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한다. 현금을 요구하는 설교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면 깨끗한 목사가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목사이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주기 싫어 교회와 개인에게 선교헌금을 요청해 본 적이 없는 선교사라면 어떻게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배짱과 기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선교사를 포함한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런 사고로 펀드 레이징에 임한다. "자신이 어렵게 번 돈을 내놓지 않으려는 사람을 설득시켜 사역비를 받아야 하니 펀드 레이징이야 말로 가장 떨리고, 힘든 일이다. 일종의 필요악이라 할까?" 이제껏 이런 전제를 가지고 펀드 레이징에 임했다면 오늘부터 펀드 레이징에 대한 새로운 눈, 새로운 전제를 갖고 2018년 사역에 임했으면 한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전제는 이것이다. "인간은 누구라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적으나마 자신이 갖은 재화를 내어 놓으려고 한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사역이 상대방이 가까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바로 그 사역인 것을 설득하는 일이다." 만일 상대가 설득되지 않았다면 조금도 망신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가 당신을 반대하는 것도, 공격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그는 설득되지 않았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당신 사역의 파트너로 주님이 주신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냥 감사하고 지나

가면 된다. 얼굴을 붉히고 모멸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리더가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망신도 당하면 안 되고, 오히려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모멸감을 느꼈을 때 아무 일 없다는 듯 털어버리고 웃으며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결코 리더가 아니다.

많은 경우 선교사들이 자신의 사역과 가족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펀드 레이징에 임한다. 초점이 여기에 있으면 펀드를 내어 놓아야 할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당신 사역과 당신 가족의 필요가 나의 생활과 내 가족의 필요보다 앞서야 하는가? 후원자가 알고 싶은 것은 필요가 아닌 비전과 가치 (value)이다. "자금이 없어 일을 못합니다. 돈을 보내어 주십시오"라는 호소보다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됩니다. 당신과 내가 힘을 합치면 능히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 후원자가 듣고 싶은 메시지이다. "나의 사역이 자금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 는 식의 문제 위주의 펀드 레이징만 한다면 지혜로운 투자자는 절대 침몰하는 배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야에서 회막을 지었던 모세의 펀드레이징 결과는 이러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을 가진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 35:21). 한 마디로 모세의 펀드 레이징은 회중에게 감동을 주었다. 펀드 레이징의 초점이 필요 (need)에만 맞추어져 있으면 감동을 줄 수 없다. 공동의 꿈, 고귀한 가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충분히 상태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이런 것들은 감동을 가져다준다.

##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서병재 목사  
케냐 멜빈대학교 총장

"선교지에 돈 보내는 것은 깨어진 독에 물 붓는 식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도 한다.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들 한 것인데 나도 처음에는 백퍼센트 동감했다.

그러나 계속 생각해보니 재정적 지원이 꼭 낭비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해답은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라는 명제이다. 어릴 때 보면 바닥에 구멍이 송송 뚫린 독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을 키우는 것을 봤다. 어머니께서 물을 붓는데 밑으로 다 빠진다. 그런데 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 콩나물이 더 자라있다. 희한한 논리인 것 같다. 물은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란다는 것 결국 물을 가볍게 먹고는 자란다는 것이었다.

길보기에는 분명히 구멍 뚫린(깨진?) 독에 물 붓는 식이다. 그래도 불만이 없이 또 붓는다. 그것도 계속 붓는다. 해외 선교지에 재정적 지원은 이런 모습과 같다는 답을 나 자신은 느꼈다.

우리 멜빈대학교를 보자. 우리 학교도 3년째 지나가고 있으니 깨어진 독에 물을 많이 그리고 계속 부어온 것이 사실이다. 처음에는 표시가 잘 나는 듯 했다. 뭔가 건물이 자어지고 학생들이

늘어나는 듯하니 외부의 후원자들도 만족해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계속 들어가고 하고 끝이 없는 듯이 보이나, "깨어진 독에 물 붓는 식이다"라는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은 어느 선교자이든지 공통된 현상일 것 같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깨어진 독에 물 붓는 현상이 아니다. 겉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그 물 붓기가 깨진 독이 아니라 가난한 아프리카의 미래 인재양성에 백퍼센트 사용되고 있다. 깨어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증명에는 매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 해답이다. 그런식의 물 붓기였지만 그 와중에 공부하여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 물 붓기의 열매이다. 이번 6월 멜빈대학교에도 23명이 졸업한다. 비록 깨어진 독에 물 붓기 식이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콩나물처럼 자라고 있다. 그러니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깨어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 할지라도, 계속 부을 때 열매는 눈에 보이게 열리는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이면 열매를 본다. 이 열매는 영원히 간다. 졸업장은 영원히 간다. 그러나 "깨어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라는 맞는 말이지만, 다 버리는 물이 아니고 얼마간은 그 물을 머금고 자라나는 콩나물처럼 학생들은 자라면서 매년마다 20-30명씩 졸업한다. 한 학교가 이렇다면 선교지인 가난한 나라의 학교들에서 전체 합치면 매년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된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완전히 버려지는 물, 즉 쓸데없는 투자가 아님을 재확인 해보게 된다.

#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 예수 사랑하심은(Jesus Loves Me)



윤상 교수  
원미선대학교

## 윤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 (Jesus Loves Me)” 찬양은 역사상 가장 사랑 받는 어린이들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면 필자가 어린 시절 겪었던 추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1970년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5월의 마지막 주 정도로 어렵 쫓이 기억합니다. 필자가 주일학교를 간다고 나서는데 교회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자 사리를 해서 구워 먹었던 그날, 제 평생에 저의 엄마로부터 가장 큰 꾸지람과 회초리로 매를 맞으며 그날 밤, 엄마가 주신 벌로 저는 이 찬송을 목 놓아 불러야 했던 추억이 있는 찬송이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에 합입어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 부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철적이었던 필자는 단짝이었던 친구가 몇 주 전부터 계획한 이 공놀이를 감자 사리 모인 이날 꼭 함께하자 라는 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함께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감자 사리를 해서 배불리 먹고 마음 한편에는 큰 두려움을 머금은 채 집으로 들어온 그날 필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필자가 교회를 가지 않았던 사실을 알았던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갑자기 변신해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필자에게 “어디 다녀왔니?” 딱 한 마

디만 묻고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바지 종아리를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찬물을 받을 놈아” 라고 언성을 높이며 무자비하게 종아리에 피멍이 들게 회초리를 내리 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벌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는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네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찾아 10번 부르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성문을 쓰는 가운데 필자의 머리에 가장 떠올랐던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이었기에 그날 밤 필자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이 찬송을 불러야 했던 아련한 추억이 있는 찬송가입니다.

당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자식으로 아셨던 엄마가 필자에게 그 무서운 채찍과 함께 당근을 주려고 하셨던 현숙한 어머니로 기억됩니다. 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의 가사는 안나 바틀렛 워너(Anna Bartlett Warner, 1827-1915)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안나와 그의 언니 수잔(Susan Warner, 1819-1885)은 19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소설 작가들입니다. 안나는 당시 에이미 로스롭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로빈슨 크루소의 농장 (Robinson Crusoe’s Farmyard)”, “달러와 센트 Dollars and Cents”, “웨스트포인트 색채들 In West Point Colors”, 등 31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두 자매는 106권의 소설과 동화책을 출간했으며, 그 중 헤이즐 Wych Hazel”, “러더포드 씨의 아이들 Mr. Rutherford’s Children”, “사테무크의 언덕 The Hills of the Shatamuc” 등 18권은 함께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안나는 1858년 “전투자들의 찬송가, Hymns of the Church Militant)와 1869년 “나그네 찬송가 Wayfaring Hymns)라는 두

권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찬송가의 제목 “예수 사랑 하심은”이라는 말은 그녀의 언니가 1860년 써서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 “말과 인장, Say and Seal)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소설에서 주일학교 교사인 린든(Mr. Linden) 씨가 그의 제자 조니 팩스(Johnny Fax)를 위로합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장면을 보고 언니가 그것을 발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녀는 성경 고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적용하여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최종적 교훈입니다. 즉 성도들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어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몸을 타락시키거나 합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1862년 윌리엄 배철퍼드 브래드버리(William Batchelder Bradbury, 1816-1868)가 후렴구에 “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를 더해 가사에 선율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교회에서 어린이 찬송가 중 가장 인기 있는 찬송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피로 값 주어 사시고 구원에 내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것이 명확하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핵심,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합니다. 켈빈 (J. Calvin, 1509-1564) 선생님은 오늘 말씀과 연결된 본 서신 1:29 절을 주석 하시면서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지 않는 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실로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하는 셈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사실답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함과 순수함을 지닌 어린이와 같은 동심의 마음을 가진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며 동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 단순하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순수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던 70년대 오월의 마지막 주일 저녁을 그리워 하게 됩니다.

## 社說

### 성소수자 축제, 왜 서울 도심 고집하나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그런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퀴어조직위)가 올해 축제를 열겠다고 한 장소가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주변 남대문로와 종로구 종각역 인근 우정국로 일대다. 서울시로부터 서울광장 이용 불가 통보를 받은 바람에 대체 장소로 정했다는 설명인데 이 일대가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 지역인 데다 주말 나들이 인파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 걱정이 앞선다.

퀴어조직위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소재 향린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울 퀴어축제가 이달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23일간 이어지고, 퀴어 퍼레이드는 6월 1일 서울 남대문로 및 종로 2가 우정국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경로는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광장 사용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불허됐다면 “6월이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라는 점을 고려해 6월 첫날로 행사 날짜를 결정했는데,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광장뿐 아니라 시민청,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역사박물관까지 4개 부서가 조직위의 행사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거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운영과 관리를 방해하는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거절했다”며 화살의 방향을 서울시로 돌렸다.

그런데 퀴어조직위 측이 말한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는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가 아닌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가 내린 결정이다. 시민위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를 우선 수리하도록 한 규정을 따랐을 뿐이다. 올해는 같은 날짜에 서울도서관의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잡혀 있어 다른 행사를 중복해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인데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인권 강연회 등 퀴어 관련 행사의 장소 대관이 잇따라 불허된 것도 마찬가지다. 주최 측은 이를 “성소수자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했으나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행사를 굳이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사박물관 등 서울 중심지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것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올해 퀴어 행사가 다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게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게 됐다. 우리 사회에 동성애 확산을 막는다는 의미로 ‘거룩한 방파제’로 명명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 측은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된 6월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20만 이상의 성도들과 국민이 참여하는 동성애 반대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그런데 동성애 확산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가를

보호하고 성 윤리를 지키겠다고 나선 이들을 퀴어조직위는 ‘혐오세력’으로 규정했다.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들을 향해 “고성, 폭언, 소란, 난동, 폭력, 상해”를 가해 사회적 갈등이 아닌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동성애 확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폭력’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세력’으로 규정하는 이들의 타인을 향한 이런 식의 독설은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는 성소수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반대하는 이들의 인권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야말로 차별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소수는 무조건 옳고 다수는 다 틀려서 다수가 소수에게 하는 모든 게 ‘차별’이고 ‘혐오’라면 우리 사회와 국가 체계의 근간인 민주주의부터 용도 폐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지난 수년 동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치르면서 갖가지 부작용과 갈등을 야기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음란한 동작을 연출하는가 하면 음란 성기구를 버젓이 늘어놓고 판매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해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소수자들이 서울 도심을 마치 자기들의 축제 성지인 양 여기게 된 건 박원순 서울시장 때인 지난 2015년에 서울광장을 퀴어축제 장소로 내어주면서부터다. 그때부터 서울광장이 성소수자들의 전용 놀이터가 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인 지난 2022년에 서울광장에서 다시 퀴어 행사가 개최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성소수자 축제를 개최하는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수도 한가운데서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 세계 퀴어축제의 대표 격인 미국의 경우, 수도 워싱턴이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 중심가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시 외곽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것도 도심 한복판을 고집하는 서울퀴어축제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퀴어축제 참가자들은 도심에서 벌이는 퍼레이드를 통해 성소수자들이 억눌린 표현의 자유를 맘껏 분출하려는 데 왜 방해하느냐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는 곧 과도한 신체 노출과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행어 어린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치게 될까봐 걱정하는 시민들의 감정과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폭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만의 축제이니 뭘 하든 당신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태도 또한 시민이 마땅히 누릴 자유에 대한 폭격이 될 수 있다. 누가 뭐라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이들에게 서울 도시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서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62%, 고교 때 학업 중단... ‘심리·정신적 문제’ 이유

### 여성가족부,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발표 “정서적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해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를 떠난 청소년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 2021년 조사 때인 67.9%보다 소폭 낮아진 수치다.

이러 중학교(20.8%), 초등학교(17.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23.0%에서 2.2%포인트(p) 낮아졌고, 초등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9.0%에서 8.0%p 높아졌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심리·정신적 문제(31.4%)가 가장 높았다. 이어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7.1%), 부모님의 권유로(22.4%),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21.8%) 등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부모님의 권유(61.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30.3%)’, ‘학교 친구와의 문제(23.3%)’ 순이었다.

중학교 때 그만둔 청소년은 ‘부모님의 권유(35.2%)’,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33.6%)’, ‘심리·정신적 문제(28.8%)’ 순으로 답했다.

고등학교 때 그만둔 청소년은 ‘심리·정신적 문제’가 3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24.5%)’,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4.1%)’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은둔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비율은 6.4%에 달했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은둔했다는 응답도 3.5%에 달했다. 은둔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이 은둔하게 된 주요 계기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3.7%)’,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9.6%)’ 순이었다.

다만 여가부는 “조사에서의 은둔 경험은 현재가 아닌 과거 학교를 그만둔 이후 밖에 나가거나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던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점, 코로나 19 여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의 학교 밖 청소년 대비 은둔 청소년 규모로 추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들의 69.5%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 준비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조사 대비 11.2%p 높아진 것이다.

대학진학을 계획했다는 응답도 22.7%에서 29.6%로 6.9%p 증가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021년 조사에서 17.4%였으나 9.9%로 7.5%p 감소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고통배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소년활동 배우자, 진학 정보제공·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로탐색 체험 순이

었다.

이 밖에도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신체활동 실천율은 10.8%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13.2%에서 소폭 낮아졌다.

비만율은 17.7%였다. 특히 남자청소년은 20.7%, 과체중률은 10.4%로 여자청소년보다 높았다. 여자청소년은 저체중률이 9.4%로 남자청소년보다 높았다.

현재흡연율은 19.3%, 현재음주율은 21.2%였다.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각각 8.8%p, 7.5%p 감소한 수치다.

마약류 등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수준은 잠재적 위험군이 29.6%, 고위험군이 4.2%였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마약이나 도박 같은 신흥 위험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 등 유해정보 모니터링

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해 마약·음주·흡연 인터넷 도박 중독 방지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마음건강 보호를 위해 우울, 불안, 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위기도를 측정해 집중심리리스크 등 전문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발굴, 상담, 치유, 학습 등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립·은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전문 직업훈련, 일경험(인턴십)·직장체험, 취업연계 등을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 (사)성민원, (주)현대케피코 밥퍼봉사단 함께 ‘어버이날 기념 사랑의 특식 행사’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8일 (주)현대케피코 밥퍼봉사단과 함께 약 100여명의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특식’ 무료 급식 행사를 진행했다.

성민원무료급식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현대케피코 밥퍼봉사단의 후원으로 어르신들에게 오리고기 등 영양식을 대접하고, 카네이션과 빵을 선물로 전달했다.

임직원 봉사단은 이날 배식과 식사보조, 청소 등의 봉사활동으로 함께했으며, 성민원무료급식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 은혜를 부르며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밥퍼봉사단 채을용 단장은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어르신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성민원 이사장님을 비롯해 힘써주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귀한 일에 함께 하는 봉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는 “매년 성민원에 관심을 갖고 후원과 봉사로 함께하는 현대케피코 밥퍼봉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케피코는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지향하는 사회공헌 철학을 이어받아 지역사회 및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들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사랑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케피코 밥퍼봉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특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민원

사단법인 성민원은 1998년, 군포제일교회 부설 사회복지기관으로 설립돼 26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성민원무료급식센터를 개소하여 1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 자부담으로 지역 결식 청소년 및 어르신들에게 석식 약 16만여 끼를 제공했다.

이루리 기자

## “직원 건강 지키는 기업” ...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 6월 10일까지 인증신청 접수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10일(금)부터 6월 10일(월)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4년 인증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월)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 모집 후 인증 최소기준 준수여부 확인,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에 대한 서류검토 및 인증심사(직원 만족도 조사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를 거쳐 2024년 건강친화기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여가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근로자 및 국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강친화기업은 직원과 국민의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2년간 선정된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가 제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에 건강친화적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서다운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교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장으로 맞이하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평화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들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를 열어달린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기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훈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샘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검손과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수를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홍익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사: 이재훈 목사.**  
**장소:**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시:**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화:**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훈)

너희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품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 부흥회 특징 ]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장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향의 교회 담임장  
대전기독교부흥사회 대표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 1.청정지역입니다
-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 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 원활한 혈액순환!
-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 항산화 건강까지
- 하루 2캡슐
- 고품질 노르웨이산
-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 말씀을 벗하여 살아가는 삶

### 크리스천북뉴스 서평 '깨달음은 더디 온다'

속도가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말합니다. 그리하여 과정은 무시됩니다. 사람에게 대한 관심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율리도 우선순위에 한참 뒤에 있습니다. 오로지 경쟁 우위를 통해 승리를 쟁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인내가 없습니다. 성실함은 도외시됩니다. 일상은 무너집니다. 효율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참된 교육과 배움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사유하기보다는 더 빨리 답을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인생에 대한 진지한 접근보다 순간적인 체제술만이 난무합니다.

신앙의 영역까지 이러한 현상이 보입니다. 진득하게 말씀 앞에 기다리기보다, 재빨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더 유익하고 편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입재에 잠잠하게 잠겨있으면서 그분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강렬하게 찾고 울부짖는 매달리는 기도를

선호하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침묵의 영성, 사막의 영성, 가다립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 어른이 절실합니다. 그럴듯하고 번지르르한 말만 하고 뒤에서는 탐욕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산배 말입니다.

사막의 교부와 교모는 '압바(abbā)와 '암마(amma)로 불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인데, 묘하게 우리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을 엮은 이덕주 교수는 교부와 교모를 한 마디로 정의합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산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의 중심은 간단합니다. 오로지 주님과 가까이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합니다. '떠나라'라는 말씀을 따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훈련받는 곳은 대부분 광야나 사막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다윗과 예수님까지도 말입니다. 바울 또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은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 장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막의 교부와 교모는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그들 또한 하

나님 한 분만 바라고 그곳으로 갑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들에게 무의미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더욱 풍성한 교제를 갈구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이덕주 교수가 엮어내고 해설한 이 책 『깨달음은 더디 온다』는 속도와 결과를 중시하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참 어른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아왔던 혹은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막의 교부와 교모를 만납니다.

이 책은 사막의 교부와 교모들의 가르침을 20가지의 주제로 엮었습니다. 포기와 영적 훈련, 의식주와 기도생활, 노동과 시련, 죄의식과 순종 등 이 모든 주제들은 우리 삶에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 밀어냈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들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번잡스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 가운데 작은 깨달음들은 우리를 크게 요동치게 합니다. 다다지만 천천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요.

모종현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위원

### 신간

## 다음세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 자각과 위기의식은 이미 공론화된 지 오래다.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수많은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새로운 콘텐츠와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지만, 이 또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교회 학교를 소진하게 만드는 딜레마의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에 저자 구선우 작가는 다음세대를 향한 사역 방법 및 전략이 아닌 다음세대와의 동행에 이 책을 통해 주장한다. 저자는 "다음세대는 결코 포섭을 하거나 그 무엇으로 손쉽게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젊은 세대는 개인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경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경험할 곳이 많이 생겨났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인터넷 세상에 공유되고 있다. 청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권위적인 설교로만 승부를 걸겠는가? 나이로 평가하지 않고, 청년을 신앙 공동체의 주제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다람쥐가 원하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묻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사람이나 범인이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없기에 누구도 남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모두이다. 누구도 누구의 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유 할 수 있다. 이 점이 나체의 철학과 다른 지점이다. 주인의식 없는 다람쥐들에게 역으로 주인의식을 주입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면 어떻게? 중심을 잃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맹이 없는 시대정신이 아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소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5월, 작가들의 말말말



성경 눅13:5 이하에서, 어느 한 종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삼 년 동안 열심히 김을 매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며 잘 가꾸었다. 그러나 열매가 열리지 않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다. 종은 "한 해만 더 김을 매고 거름을 주겠다"하며, "만일 이후에도 실과가 없으면 찍어 버리소서" 했다.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릴 때(3-4년)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여러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믿음(열매)으로 살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의미다.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회개한 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김태완 '열매로 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론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자유의지란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원죄에서 자유롭다는 논리를 만들었지만, 동일한 자유의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원죄에 책임이 있다는 정죄로 발전한 것이다. 그 후, 초대교회 시대의 대표적인

교부의 신학적 토대에 교리배경을 둔 수많은 신학교와 신학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자유의지를 수용했고,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자유의지의 올바른 정의는 '그 의지적 결정은 미리 예정될 수 없어서,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의지'라고 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면, 그들이 선악 과실을 따서 먹게 되는 것을 하나님조차 예정할 수 없어야 한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진정 있다면, 각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린 후에야 하나님조차도 그 사람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해도, 이는 그의 주장일 뿐,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남을 겪은 사람의 영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로 창조적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의 말씀은 점차 그 거듭난 영의 사람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 변화의 시기가 어떤 이에게는 순식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많은 세월이 지나기도 한다.

장영수 '은혜 장막과 자유의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죄를 깨닫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신앙생활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서인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부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일부 담임목회자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부교역자들과 교인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인물의 대표적 사례로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제시합니다.

최성훈 '핵심 본문으로 보는 성경 2'

## 강인숙이 들려주는 남편 이어령의 70년, '만남'

"나는 그의 삶에 대한 정열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내가 구하다 못 구한 것이 거기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를 사랑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이 남편 고 이어령 선생에 관해 쓴 에세이 '만남'이 출간됐다. 이 책은 스무 살의 이어령 선생이 "까까머리를 막 기르고 있는 대학 신입생의 모습"으로 나타난 순간부터 아흔 무렵의 그가



투병 끝에 마주 잡고 통곡했던 이별의 시기까지 함께 울고 웃었던 70년의 세월을 담았다.

강인숙 관장은 자신과의 만나기 전의 이어령의 시간부터 살폈다.

생전에 이어령 선생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가족들의 증언들로 그의 뿌리와 어린 시절을 조명한다.

이어 대학 시절 그와 만나 인연을 맺은 이야기를 전한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뵈던 첫인상부터 다방을 이저트

삼아 종일 온갖 화두로 이야기를 나눴던 연애 시절, 결혼 후의 모습 등을 풀어냈다.

이어령 선생이 창간한 문예지인 '문학사상'의 탄생과 운영 비화, 한국 학자가 쓴 일본에 대한 책으로서 일본 열도에 큰 돌풍을 일으킨 저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집필 과정, 문화부장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창의적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이어령 선생의 예술가적 집념을 담은 일화 등 이어령 선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조수원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경교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오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 매일묵상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grape]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5: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택하셔서 큰 사랑과 기쁨을 주셨다. 이것은 택함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다.  
 특권을 받은 자 안에 책임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기쁨을 “가서” 나

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 우리를 택하시고 ‘가라’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생육하라’로, 영어로는 ‘Be fruitful, 열매를 많이 맺어라’는 뜻이다.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선물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이미 생육의 길을 그 삶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쉬운



말이다(요일41:9).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 그 사

랑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렇기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은 주께서 먼저 나를 택하셨음을,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아는 것이다. 신앙의 장성함은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 택하시고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

YEFK 제공

##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37:23-24 NIV

The Lord makes firm the steps of the one who delights in him; though he may stumble, he will not fall, for the Lord upholds him with his hand.

- ☞ ‘make + 목적어(the steps) + 형용사(firm)’의 구조
- firm: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 delight in: ~을 매우 기뻐하다
- though: 비록 ~일지라도
- stumble: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 fall: 넘어지다, 쓰러지다

- for (접속사): (구식·문어체) 왜냐하면

- uphold: 붙잡다, 유지시키다, 옹호하다

시편 37편 23-24절  
 주님은 자신을 매우 기뻐하는 자의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비록 비틀거리더라도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분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 영어성경 독해 연습

### 바이블칼럼

##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급변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기업이나 모든 조직들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시대의 필연적인 요청 때문이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교회도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나가야 한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과 조직체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학교 병원 대학 봉사기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아직도 교파 간의 경쟁과 대립, 성장과 업적주의의 옛 패러다임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술은 마련데 있는데 새 술을 담은 그릇이 준비돼 있지 않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던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사교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패러다임 변혁운동은 성전체제의 정화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는 바리새, 에세네, 열심당 운동 등과는 달리 세계 변혁운동의 목표를 권력구조의 개혁이나 사회경제구조의 변혁에 두지

않고 성전 체제의 정화에 두었다. 이 같은 예수의 개혁 운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살롱이 파괴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변질된 데서 보았던 것 같다.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참된 정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평화를 이루는 첩경이라고 여겼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헤롯에게 온갖 아첨을 다 떨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의 물질 공세를 통한 정치 목적과 종교 목적이 혼합된 타락의 온상이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극에 달한 대제사장 세습과 유대교의 교권주의는 잘못된 권력구조와 상업주의로 나아가 나머지 진정한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형식주의에 빠졌던 것이다.

예수의 성전 정화 운동은 중국에는 정차·경제·종교·사회를 움직이는 특권층의 기득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했다.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변혁 운동으로 발전된 낡은 권력구조와 사회체제의 붕괴를 가져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탄

생을 가져온 것이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들이 이 세속 세계의 권력과 결탁하고 상업주의의 온상이 돼 버린 데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회복하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교회에 침투한 세상 가치와 탐문의 지배를 물리치고 성정주의와 공적주의로 얼룩진 과거의 낡은 모습을 청산해야 한다.

종교 개혁은 부패한 교회, 경직된 종교, 변질된 신앙을 썩지 않고 부드럽게 열린 종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앙으로 개조하는 데 있다.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구조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교권주의의 틀을 자양하고 전문영역과 전문성을 중심 하는 선교구조로 개혁 되어야 한다. 둘째, 목회자나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개혁 운동을 통해 딱딱하게 굳어진 구조를 열린 구조로 바꿔 가야 한다. 셋째, 성직자에게 편중된 교회구조를 평신도 중심의 분산된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넷째 성장에서 사회 섬김으로 교회구조를 바꿔 가야 한다. 다섯째,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구 탄생을 통해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기독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추운 겨울밤 넓고 큰 그릇에 고슴도치 때를 담아 밖에 내어놓았다. 영하 20도 혹한 속에 찬 바람이 불어오자 부들부들 떨던 고슴도치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물러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따뜻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마다의 침이 상대방을 찌르자 아파오기 시작한다. 피를 흘린다. 고슴도치들은 아파서 흩어지기 시작한다. 흩어지면 춥다. 추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견딜 수 없어 다시 물러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모두가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고... 날이 밝아왔다. 아침에 나가 보았더니 다 죽어 있었다. 절반은 얼어서 죽었고 절반은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공동체들이 급속히 깨어져 가고 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마다 혼자 살아가겠다고 한다.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그립다. 용서와 용납의 자리가 그립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가 그립기만 하다.

우리는 무엇인가 아쉽고 외로워서 모여 본다. 서로를 의지해 본다. 그런데 공동체가 연습이 안 되어 있기에 갈등을 느끼고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를 극복할 줄 모른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받고 너는 나에게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흩어진다. 흩어지면 다시 외로움을 느낀다. 춥다. 추위에 떨어 본다. 세상이 혹독

하기만 하다. 공동체가 그립다. 은혜의 자리가 그립다. 다시 물러온다. 그러나, 물러와서는 또 상처를 주고받는다. 증오심만 키워간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교회 문을 열고 보았더니 절반은 피를 너무 흘려 죽어 있고 절반은 추위에 얼어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받고 사랑 나눌 공동체가 없어서, 상처가 치유되고 쓰러진 자가 회복될 삶의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풀어준 은혜를 경험할 자리가 없어서 부동경안고 씨름하다 죽어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면류관 쓰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프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받은 은혜와 감격을 나누기 위해, 받은 상처와 약점을 내어놓고 회복하며 치유 받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음을 인해 아프기만 하다. 오히려 저마다 썩을 세상만을 위하여 일하고 살았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웠던 영광스러운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저마다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추위에 떨고만 있는 것이다.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했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초대교회는 바로 한 가족이요 함께 삶을 나누는 하나 된 공동체였다. 로마의 창갈과 핍박, 콜로세움과 십자가에서의 순교 앞에서 성도들은 매일 카타콤에서 가정에서 소그름으로 대그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감격하고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불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였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일을 감당할 동역자들, 성도들, 교회를 찾고 계신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4-47)”

※ 외부 기고 및 칼럼 등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태완 목사(예화포커스) 중

광동초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청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침향 16%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향의 진화 정성, 광동 쌍회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솔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96)**

### 로마서 8장 18절

18.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 I consider that : 생각건대  
· our present sufferings : 현재의 고난은  
·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 ▶ 중요한 단어, 속어

consider 생각하다. present 현재의, 바치다, 드러나다, 선물. reveal 나타내다, 계시하다. // to reveal a secret : 비밀을 드러내다[폭로하다]. // Details of the murder were revealed by the local paper : 그 살인 사건의 상세한 내용이 지역 신문에 다 드러나 있었다. // The report reveals (that) the company made a loss of £20 million last year. : 그 보고서는 그 회사가 작년엔 2천만 파운드의 손실을 본 것을 폭로하고 있다. // It was revealed that important evidence had been suppressed. : 중요한 증거가 은폐되어 왔었음이 폭로되었다. // Officers could not reveal how he died. : 경찰관들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힐 수가 없었다.  
compare with ~와 비교하다. be worth ~ing : ~할 가치가 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큰 문제에 봉착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항상 마음에 떠올려야 할 위대한 말씀이다. 크고 작은 관을 당할 때마다 “장차 내가 받게 될 상에 비하면 현재 겪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은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실로 위대한 말이다. “내가 지금은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지만, 나는 장차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즉,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외쳐 보라. 힘이 솟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4:16-18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 하노니 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重)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6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yet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17 For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that far outweighs them all. 18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 ▶ 해석

·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 로마서 8장 19절

19.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

· The creation : 피조물의  
· waits in eager expectation : 고대하는 바는  
·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 :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 ▶ 중요한 단어, 속어

creation 창조, 창조물, 피조물, 천지만물. // in expectation (of) : (~을) 기대[예기]하고. // She was constantly in expectation of being arrested. : 그

녀는 항상 체포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 beyond expectation : 기대 이상으로[이하로]. // The consumer electronics department performed beyond expectations last year. : 전자 제품 부서는 작년엔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 against[contrary to] (all) expectation(s) : 예상과는 달리, 기대에 어긋나서. // But against all expectations he won the first prize. : 그러나 그는 예기치 않게 일등했다. // an inflationary expectation : 인플레이 기대. // contrary to one's expectation : 예기한 바에 반하여, 뜻밖에도. // according to one's expectation(s) : 예상했던 대로, 기대한 대로.

wait 기다리다, 기대하다. wait in eager expectation 간절한 기대속에 기다리다. wait for ~을 기다리다. expectation 기대, 예상, 가능성, 대망.

여기 19:20절에 나오는 “피조물”은 우리의 옛 성품, 옛 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2)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 우리가 거듭난 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천사들이 갖고 있다가 타락했을 때 빼앗겼던 권세를 우리가 대신 양도받고, 그들의 위치를 우리가 점유하게 된다는 뜻이다.

### ▶ 마태복음 22:30

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과 같으리라 30 At the resurrection people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 요한일서 3:2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2 Dear friends,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But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 이사야 11:6-9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쾨 집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짐작하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짐승이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6 The wolf will lie with the lamb, the leopard will lie down with the goat, the calf and the lion and the year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will lead them. 7 The cow will feed with the bear, their young wi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will eat straw like the ox. 8 The infant will play near the hole of the cobra, and the young child put his hand into the viper's nest. 9 They will neither harm n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wi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 ▶ 해석

·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교회)

### 오늘의 예화

## 아버이 주일의 유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과부가 자녀 4명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양계를 했습니다. 밤에는 삼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없는 어린 네 남매를 훌륭하게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을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입고 나갈 만한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가서 자기가 조롱을 받는 것이야 괜찮지만, 아들이 영광스럽게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아들에게 누가 돌아갈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말았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꼭 오셔야합니다. 다른 일을 제쳐두고 서라도 저의 졸업식에는 어머니가 꼭 와 주셔야 합니다.”

울면서 애원하는 아들의 간청을 어머니는 차마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입던 누더기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쪽 구석

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아들은 졸업식을 대표해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아들은 뚜벅뚜벅 걸어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 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영광을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의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어머니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은 무한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28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1914년 그가 재임할 때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자기의 뒷바라지를 해준 어머니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국회의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 2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키기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와 같이 5월 2째 주일이 되면 어머니주일 또는 아버지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선희 목사 설교 예화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성경古인물 목수 요셉(Joseph)

신약성경에서 기억나는 인물이라면 요셉을 빼뜨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등장할 뿐 아니라, 예수의 육신적 아버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어 요셉의 생물학적 아들은 아니지만 요셉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요셉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글로 요셉으로 번역했으며, 영어는 Joseph입니다. 요셉이란 이름은 헬라어로는 'Ιωσήφ'에서 가져온 것으로 우리나라는 영어에서 가져와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식은 '요세프'입니다.

요셉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아홉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요셉은 아홉이 사랑했고 원 부인으로 인정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후에 라헬은 한 명의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으로 죽게 됩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요셉이란 이름은 낯선 존재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애굽으로 피난하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후에 예수님을 비방할 때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 때문에 요셉이 목수인 것을 추측할 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출생에 관련된 것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고,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신약은 왜 요셉에 대해 대부분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신약성

경에서 말하는 요셉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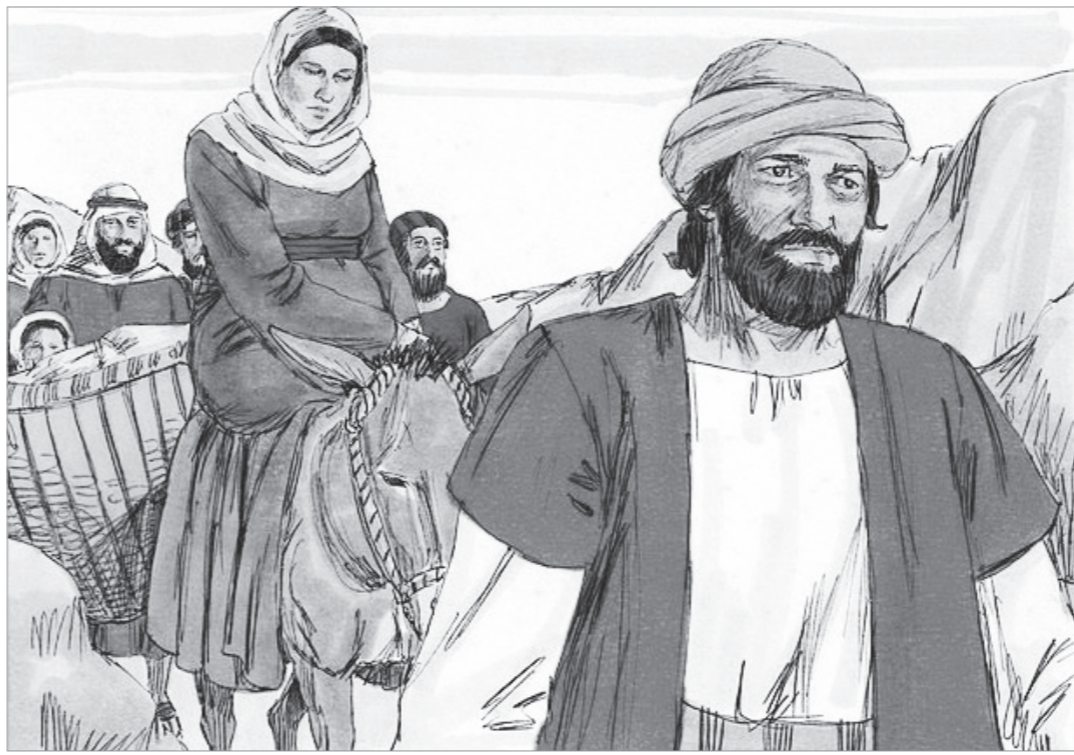
요셉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6입니다. 마태복음은 대체로 80년 쯤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을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1세기 후반에 기록된 것이며, 초대교회의 신학이 정립된 후에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삶이 모호한 요셉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기자는 족보 안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마 1:16 아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에 나타난 요셉은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합니다.

### 마태복음 1:18-23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의 담화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요셉이 '다윗의 자손(1:20)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성취한 존재로 그려집니다(사 7:14).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함께 할까요?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으로 말합니다. 처녀인 히브리어 '알마'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여인을 뜻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남편 없이 임신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야의 예언은 생각이 생각하는 방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방식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

취인 동시에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천사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삼습니다.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 피신과 갈릴리

아마도 헤롯의 학살사건은 학자들은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성경 외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학살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학자들도조차도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기자가 신학적 의도 속에서 다른 내러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 유아 학살사건은 출애굽 당시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인 사건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신을 헤롯에게 대입시켜 헤롯이 거짓의 왕 바로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낳고 요셉은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마태복음은 곧바로 피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 21:6에서 헤롯은 자신이 알아본 때로부터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이곳에서 누가복음과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애굽으로의 피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확실히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설교도 다섯 강화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모세오경을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헤롯이 죽고 아들이 헤롯이 오기까지의 과정은 역사

가들마다 다릅니다. 최소한 5년 정도가 흐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역사 속에서 헤롯 대제를 기원전 4년에 죽고, 그의 아들이 아켈라오가 유대를 대신 통치하게 됩니다. 유대로 가려고 했지만 천사의 명령을 받아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이후 요셉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성경은 요셉 이야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로 얼마 가지 않아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뿐입니다. 단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의 어린 시절 '그의 부모(2:41, 48)가 언급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눅 2: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 요셉의 직업 목수

예수의 비유 중에는 목수 관련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들보(서까래), 명에(마 11:30)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일반인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목수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 7: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1:29-30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목수는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들이 아니라 건축가가 가깝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셉의 직업을 추론한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전문적인 목수는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목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는 막노동꾼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그 이후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간 후, 요셉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이러한 정황은 요셉이 갈릴리로 돌아간 후 예수가 20대가 되기 전 일찍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과 형제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리아가 재혼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 제공

### 성경상식

## 예레미야애가 (Lamentations)

### 비탄 속의 희망

구약성서의 예레미야서 다음에는 짧은 예레미야애가가 이어진다. 예레미야(‘우는 선지자’)가 지은이일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붙었다.

이 책은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게 함락당한 것을 애도하는 다섯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바빌로니아는 성전을 불태우고, 도시를 약탈하고, 많은 백성들을 잡아갔다. 희망을 주는 구절도 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는 선하시도다(예레미야애가 3:25)”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난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매년 11월 9일, 성전이 파괴된 날에, 회당에 모여 이 책 전체를 낭독한다.

그리스도교 교회에서는 성금요일과 그 이튿날인 성 토요일의 예배에서 일부분을 읽는다.

예루살렘의 점령에 대한 애도와 예수의 처형에 대한 애도를 연관 짓는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많은 작곡가들이 예레미야애가를 소재로 음악을 만들었다. 들보 출판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 피아노 연습 방법에 대하여

### 의식적인 연습

Q / 제가 지방 대학 콩쿠르에 한번 나가 보려고 하는데 피아노 연습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준희 교수

A / 양보다 질, 그리고 '최상의 질로 다다익선'이라고!

피아노를 치는 것이 단순 노동이 아닌 만큼,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한 순서대로 콩쿠르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콩쿠르 준비 여부를 떠나 자신의 연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집중할 때 단순 집중을 하는지 음악적인 집중을 하는지도 중요할 테고요.

Q / 집중에도 단순 집중이 있고 음악적인 집중이 있나요?

A / 이 집중의 두 종류는 내가 즉흥적으로 붙여본 단어인데요. 연습을 할 때에 단순히 연습 횟수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면, 음악적인 집중력은 훈련되지 않아요. '잘못된 프레이징, 잘못된 소리, 손모양' 등을 신경 쓰며 자신의 피아노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악보 본 횟수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무시한 채 훈련하게 됩니다. 무조건 피아노를 5시간 치기보다 자신의 피아노 소리에 집중하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연습한다면 음악적 집중, 즉 몰입의 기쁨을 알게 되겠지요.

Q /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음악적 집중을 얼마나 잘 하느냐는 것 자체가 음악적 소질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적 집중의 개인차도 있을 것 같고요.

A / 맞아요. 어떤 학생은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고 음악적 집중력 또한 뛰어난데 가르침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세월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안내심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피아노 연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까요?

### 첫 번째 - With Music, With Piano 악보 보며 연습하기

악보를 보며 피아노를 연주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연습한다'라고 말하면 이 방법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악보를 보며 피아노에서 연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악보를 보며 연습할 때는 자신의 소리에 더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각의 중심이 악보(눈)에 쏠리면 아무래도 귀의 듣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보의 지시 사항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과 자신의 실제 연주 소리가 근사한지 잘 들어야 합니다. 악보에 집중하면서도 잘 듣는 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귀는 집중하는 만큼만 들립니다.
2. 악보가 제의 피아노 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보를 꼼꼼하게 봅시다. 스타카토 하나, 슬러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 봅시다. 악보를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도 습관을 들이는 만큼만 보입니다.
3. 연습하다 보면 따로 떼어내어 더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바로

자신이 테크닉적으로 미숙한 부분이며 갈고 닦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노출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연습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스케일 테크닉이 될 수도 있고 아르페지오 패시지일 수도 있고 혹은 옥타브 스케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표현의 테크닉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 연습'할 그 부분에 숫자를 부여하거나 발견 날짜를 적어 놓고 그것이 해결될 때마다 표시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간혹 그러한 '부분 연습'거리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채 곡을 대강 마무리하는 학생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새로운 다른 곡을 접한다 해도 그 지뢰는 어디선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 지뢰가 나올 때마다 겁을 먹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드백이 생깁니다. 본인이 해결할 부분을 그냥 넘어감으로 인하여 내공을 쌓을 기회를 포기했고 본인도 자신의 연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운에 맡겨 버립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스스로 연주를 신뢰하지 못할 때 몸은 경직 반응을 일으키며 그 경직 현상으로 인하여 운이 좋으면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지뢰를 여지없이 밟게 됩니다. 대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손가락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손가락도 훈련하는 만큼 길듭니다.

4. 악보를 보며 부분 연습할 때에는 눈과 귀와 손가락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도 필요합니다. 그 지뢰가 단지 연습량의 부족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연습 방법으로 접근한 때문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패시지는 충분히 숙지 되지 않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경우는 연습량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기간을 투자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완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치고 있었거나, 주법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연습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이 틀린 경우입니다. 때로는 손 모양의 교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므로 셀 수 없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때 주법의 교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니 머리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왜 자주 틀리는지 연구 분석해야 하니까요. 선생님의 교정 지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선생님은 좋은 소리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훌륭하게 교정 지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연주를 녹음해서 들어보거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음악적 지능도 훈련하는 만큼 발달합니다.

5. 위와 같이 '부분연습'의 해결과정을 거쳤다면 어떻게 얼마만큼 연습할 것인지도 참 중요합니다. 음악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여 횟수에 충실하다 보면 손가락을 잘못된 방법에 길 들여 놓은 후에야 레슨을 통해 음악을 뚫

붙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패시지를 위해서 특정한 방법으로 연습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패시지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습하십시오. 효율적인 예비 연습의 방법은 "그때 그때 달라요"가 정답입니다. 그 방법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 피아노도 잘 치는 사람입니다. '피아니스트'는 예비 연습을 위해 단순 노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 노동이 무의식적으로 타성에 젖어 오히려 음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악보를 대할 때 가능한 음악과 함께 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신이 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악보를 잘 보십시오. 자신이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신이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곡을 나누어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서 각 색선별 연습을 하는 것도 좋고 양손 따로 연습이 필요한 경우 성부를

다양하게 나누고 조합하여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6. 무엇보다 자신의 기량을 스스로 제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패시지인 경우

\* 한 마디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할지, 한 단을 가지고 해야 할지

\* 각 손의 연습을 먼저 하고 양손 연습을 해야 할지 아니면 예비 연습 없이 양손으로 음악이 충분히 가능한지

\* 혹은 오른손과 페달의 연습을 우선 해결한 후 양손과 페달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양손과 페달을 동시에 쳐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 또한 빠른 곡인 경우 어느 정도의 템포에서 연습을 시작하여 차츰 원래의 템포로 갈 것인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알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량과 비교하여 초조해하지 마세요. 자신의 어제의 기량보다 내일의 기량, 그리고 내일의 음악이 더 발전적인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몰입의 기쁨을 느껴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야 합니다.

### ◆ 김준희 교수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음대 졸업 후 도미하여 시러큐스 대학원에서 피아노 석사학위, 피바디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오르간, 하프시코드로 석사 후 과정을 수료하였다. 2000년에 귀국하여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학교(교회음악 실기과정)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온누리교회와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피아니스트와 오르가니스트로 사역하였다.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음악 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는가?



이세나

“유대인들이 놀랐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라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 7:15-18)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고 말했던 사

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관심을 받고 계셨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르셨다.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의 지혜가 무궁무진함을 듣고서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며 놀라워했다. 그때 예수님은 절대 공부나 독서를 많이 해서 지혜가 이 정도라는 식의 자랑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쳐주신다.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다.

당사에는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들의 다양한 평이 있었다. 그를 미혹자라고 보

는 반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만약 예수님께 수군거림을 중시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미혹자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입지를 굳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이 취한 선택은 그게 아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바로 이 '지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같은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은 나에게 공을 돌리려는 사람들의 인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증명될까? 다시 말하면 말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께서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실 때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내 속에서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말이다.

예수님은 위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에 자신이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하여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을 취한 것이었음을 말씀하신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아픈 사람의 전신을 고쳐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를 도리어 질문하신다(23절). 유대인들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도리어 율법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입장에서 서게 된 것이다.

찬양사역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사역이 하는 부르심에 순전하게 반응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으며 사탄이 참소하려고 가져오는 생각도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 이세나

호서대학교 기독교연예학과(음악예술학사), 서울장신 예배찬양사역대학원(예배찬양사역학 석사/M.W.M)을 졸업하여 논문 「크리스천 음악 아티스트의 정체성 연구(국내 보컬리스트를 중심으로)」를 발표했으며 2014년 개인 앨범 「자화상」, 2015년 「In A Refreshing Breeze」를 발표했다. 현재 크리스천 음악작사, 작/편곡, 보컬디렉터 및 찬양사역자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 『찬양에 수를 놓다 1』, 『찬양에 수를 놓다 2』(쿰란출판사)가 있다.

#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 美보이스카웃, 성별 지우고 ‘스카우팅아메리카’로 이름 변경

미국 보이스카웃(Boy Scouts of America, BOA)이 소녀들도 등록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성별 프로그램을 위해 단체명을 ‘스카우팅 아메리카’(Scouting America)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보이스카웃은 지난 1일 성명에서 스카우팅 아메리카로의 이름 변경이 조직 창립 115주년이 되는 2025년 2월 8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카웃 회장이자 CEO인 로저 A. 크로네는 “우리의 이름은 새롭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인생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스카우팅 아메리카는 청소년들이 서로 배우고 존중함

으로써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환영 받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스카우팅 활동의 유익을 경험하도록 권장한다”고 했다.

2013년에 출범한 보이스카웃의 보수적 기독교 대안 단체인 ‘트레일 라이프 USA’(Trail Life USA)의 CEO인 마크 헨콕은 CP에 보낸 성명에서 이 발표에 대해 반응했다.

헨콕은 “100년 넘게 우리에게 대통령, 우주비행사, 장군 및 시민 지도자들을 제공한 놀라운 역사를 가진 조직이 소녀에 대한 집중을 포기하고, 그들과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핵심 가치에 대한 헌신을 포기한다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2018년에 보이스카웃은 처음으로 소녀들이 입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2018년 11월 보이스카웃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미국 걸스카웃(Girl Scou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포함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반발을 일으켰다.

고소장은 “보이스카웃이 핵심 프로그램에 소녀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로, 미국 걸스카웃은 상표에 미칠 피해와 그 상표가 상징하는 사명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는 걸스카웃은 보이스카웃과 합병되거나, 심지어 걸스카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걸스

카웃 프로그램 등록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대신 보이스카웃이 제공하는 새로운 소녀 프로그램에 잘못 등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두 청소년 스카웃 단체는 결국 2022년 7월 합의에 도달하며, 각각 상표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하고 걸스카웃은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카웃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했으며, 지속적인 논란과 학대 스캔들로 인한 법적 소송에 직면해왔다. 보이스카웃은 2013년 5월 청소년 동성애자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지 8년 만에 회원 수가 270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급감했다.

김유진 기자

# “북한 해방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영화”



영화 <분노의 강> 스틸컷 ©뉴크마그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곧 개봉하는 영화 <분노의 강>에 대해 “북한의 해방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는 영화”라며 추천했다.

<분노의 강>은 자유가 있는 삶을 꿈꾸던 한 가족이 겪게 되는 아픔과 고난의 생존 휴먼 드라마로,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단체들 중 하나인 트루스포럼을 이끄는 김은구 대표는 그간 독재국가로 전락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왔다.

트루스포럼은 얼마 전 화제가 된 영화 <건국전쟁>을 공동제작하기도 했다. 이

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건국전쟁>은 지난 2월 개봉해 누적 관객수 117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역대 4위에 올랐다.

한편, 영화 <분노의 강>은 1987년 데뷔한 이래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윤철형의 첫 장편영화 연출작이다.

<분노의 강>에선 영화 <명량>, <한산: 용의 출현>, 드라마 <그려 거라 전쟁>에 출연한 배우 김강일이 아버지 ‘기철’로, 애플TV+ 오리지널 드라마 <파친코>로 얼굴을 알린 신예 윤경호가 ‘철수를 맡아 열연을 펼쳤다.

<분노의 강>은 오는 5월 29일 개봉한다.

김진영 기자

# 가수 박창근 팬카페 ‘포그니’, 가정의달 맞이 기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가수 박창근(사진) 팬카페 ‘포그니’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595만 원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포그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네이버 팬카페에서 ‘만원의 행복&나눔의 즐거움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요’ 릴레이 모금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회원들이 마련한 성금은 595만 원에 달하며, 기부금은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에 대해 ‘포그니’ 관계자는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이번 달 개최되는 가수 박창근의 전국투어 콘서트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생명의 사랑-대일리큐티-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연동(김주용) 30 TV강단 성찬(오원호)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당길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5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생방송 영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승수 목사(용인비전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말씀의 생터 왕성교회 김요나 목사	30 아버지 인생의 하이라이트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30 새예덴의 언약 (소강석)	4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50 노년대화
	8:00	20 신앙예배 30 백세인생	20 다큐 더 로드 30 힐링송 5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	00 비전메시지 -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
	9:00	50 백설기	50 리바이츠 헤리티지	00 CGN 비전특강 40 Q&A 107 소모리문답 50 이스라엘로 (오십소)	10 새문개회사서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00	50 말씀노트	00 말씀의 생터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30 말씀의 생터 여의도침례교회 국영호 목사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살롱 불롱 10 더 콜링 40 CBS뉴스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1:00	00 [생방송] 한국교회를 논하다 50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총정교회 옥성석 목사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아버지 인생의 하이라이트	00 올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50 말씀의 창 - 청주금천교회 신경민 목사	
오후	12:00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오영이교회 금요성령충만집회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본영 30 TV강단 만리현성령(조준철)	20 말씀의 창 - 대림교회 김명호 목사 50 말씀의 창 - 영안장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30 신앙예배 40 [워킹온더바이블]성지탐방	00 말씀의 생터 영광교회 조이엘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고평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목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위대한 유산	00 주일예배상황 공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종조 목사(갈보리교회)	00 말씀의 힘 신일(배요한) 30 새문개회사서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5:00	40 7000마리클 - 스페셜	00 노크토크	00 [말씀] 김용준 목사(열린문장교회) 40 생명의 삶	20 행복다이어리 30 TV강단 역대(송규의)	00 선교는 지금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6:00	30 생명의 말씀-박윤호 목사(강화하늘중앙교회)	00 말씀의 생터 옥길교회 임재호 목사 30 말씀의 생터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직분자 제자훈련 (술만한 도끼 한 자루 준비합니다) 40 Q&A 107 소모리문답 50 [말씀] 박관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CBS 성서학당 (조성욱) 5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언치유	00 내 삶의 행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정필도 목사의 CTS성령집회 50 빛으로 소모리로	00 말씀의 생터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30 말씀의 생터 분당성산교회 윤규현 목사	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40 CBS 교회소식 50 성서 700 도시여행	00 말씀의 창 - 아산큰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당길	00 행복플러스 30 한성워십 50 더 메시지	00 [영화] 기도의 힘	30 TV강단 수일명성(유만석)	00 고평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목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19:00	00 찰스 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정의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00 말씀의 생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말씀의 생터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00 [영화] 기도의 힘	00 TV강단 인천제일(장찬영) 30 TV강단 배다(곽주환)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0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윤자복 목사(영동포리교회)	00 말씀의 생터 거룩한빛문정 유정삼 목사 30 주일예배상황 지구촌교회 서울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맞나는 교회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니냐 40 복음강단 - 영동영락교회 고요섭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CTS 특강	30 리바이츠 헤리티지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 50 CBS 뉴스	1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저녁	22:00	30 말씀노트 40 [워킹온더바이블]성경의 땅	10 오론교회 금요철야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한성교회-	10 올포원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금요성령집회 -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호근 목사의 CTS 금요철야예배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권퍼런스] 선교로의 부르심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10 CBS 금요철야예배 (새예덴교회)	10 금요철야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주일예배상황 한소안교회 류영모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2024 목회사관학교	00 새문개회사서 50 산위리마을 예배(김영준)	00 새예덴철야예배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TV찬양예배	00 오 자유여	00 한국교회 상담사역 권퍼런스 4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40 사랑의 말씀 (오정현)	00 비전메시지 -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바이츠워십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찬양의 찬양	00 명실교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 3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3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	00 말씀의 창 - 필그림성교회 양춘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CTS특선다큐	00 GOODTV 특별강중	00 [Global Sermon] Craig Groeschel's Ever Wonder Why?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00 새문개회사서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옥한홍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생명의 말씀-전태시 목사(서울진주초대교회)	00 은혜와 찬양 20 말씀의 생터 감일교회 차영아 목사 50 힐링송	10 [말씀] 박신용 목사(열린문주교회)	00 CBS 성서학당 스페셜 (이문석) 50 CBS 교회소식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말씀의 창 -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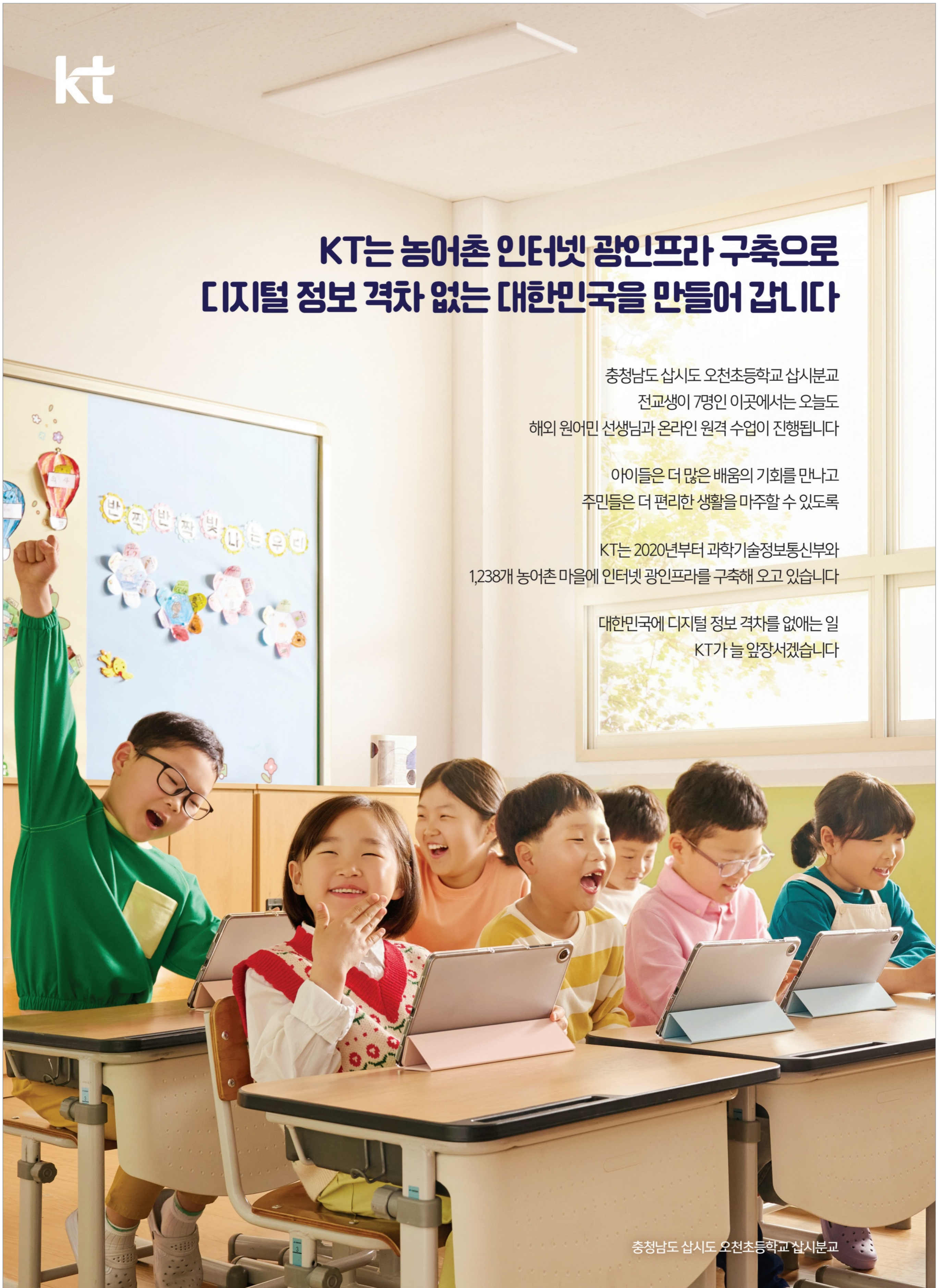
# KT는 농어촌 인터넷 광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충청남도 삽시도 오천초등학교 삽시분교  
전교생이 7명인 이곳에서는 오늘도  
해외 원어민 선생님과 온라인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만나고  
주민들은 더 편리한 생활을 마주할 수 있도록

KT는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238개 농어촌 마을에 인터넷 광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디지털 정보 격차를 없애는 일  
KT가 늘 앞장서겠습니다



충청남도 삽시도 오천초등학교 삽시분교